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678

2009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여성영웅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옥주호연』,『홍계월전』,『방한림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부 가 영

여성영웅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Aspects of Conflict in Heroine Novels: Focused on "Okjuhoyeon", "Honggyewoljeon", "Banghanrimjeon"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부 가 영

여성영웅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부 가 영

부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1. 서론 ····· 1
   1.1 연구목적 및 방법 ····· 1
   1.2 연구사 검토 ····· 4

2. 서사구조 분석 ····· 7
   2.1 순차적 전개양상 ····· 8
   2.2 서사단락의 의미 ····· 10

3. 갈등의 전개 ····· 18
   3.1 전통적 가정 윤리에 대한 갈등 ····· 20
   3.2 남성중심 사회 구조에 대한 갈등 ····· 26
   3.3 유교 중심 사회에서 정체성 갈등 ····· 38

4. 극복양상 ····· 42
   4.1 외적인격에 치중한 자기실현 ····· 43
   4.2 외적인격과 내적인격의 조화를 통한 자기실현 ····· 45
   4.3 내적인격에 집착한 자기실현 ····· 46

5. 결론 ····· 51

참 고 문 헌 ····· 53

국문초록 ····· 56

ABSTRACT

A Study of the Aspects of Conflict in Heroine Novels

-Focused on "Okjuhoyeon","Honggyewoljeon","Banghanrimjeon"

Bu, Ga-Yeong

Advisor: Professor Kim, Su-J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During the later part of the Choseon dynasty, there was a strong patriarchal system. Therefore, it was a dark period for women. However, during this time the heroines in heroine novels that were popular at that time did heroic deeds instead of following traditional female duties. If it is considered that literature reflects society, the heroines in these pieces of work act as the ideal figure of that time. Therefore, through heroine novels, contradiction in the justification of gender roles during the later part of the Choseon dynasty and the will of women who wanted to achieve self-fulfillment through independent lives can be seen.

In the early heroine novels, the heroine showed her ability to overcome temporary crises or to aid her husband rather than showing her ability for self-fulfillment. These passive heroines gradually turned more active during later times. In other words, through the heroine's criticism on the patriarchal system, skepticism on the social roles put on women by the patriarchal system and the process of being freed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of the patriarchal system can be seen. The three main stories that show this are "Okjuhoyeon", "Honggyewoljeon", and "Banghanrimjeon". Unlike other heroines in heroine novels, the heroines in these three novels break away from traditional female roles through head-on confrontation against the existing system. In addition, they show realistic problems by focusing on conflicts coming from relationships rather than showing mythical heroism. Therefore, this paper is focused on how the aspects of conflict are shown and overcome in these three heroine novels.

First of all, in order to show the different aspects, the author's intentions, and the author's aims of these three heroine novels which are different from heroine novels of the early and middle period, the unique narration structure of these three novels are presented. Then the paragraphs have been divided as 'the birth of the main character - disguising oneself as a man - parting with parents - process of study - entrance to society - participating in war and earning credits - exposure of identity -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 conflict between male and female - returning to her family' to show their meaning. As a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later period heroine novels and hero novels and the difference between later period heroine novels and early and middle period heroine novels can be seen. Firs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later period heroine novels and hero novels. The heroic birth of the main character is similar between the two.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gender. Also, compared to the female character, the male character has a strong conservative personality that is focused on feudal loyalty and restoring existing systems. Next, there i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later period heroine novels and early and middle period heroine novels in the sections of disguising oneself as a man and returning to her family. In early and middle period heroine novels, the heroine's disguise as a man was a temporary change to aid a man and when returning to her family, she did not deny or criticize the feudal system.

However, in these three novels, the heroines disguise themselves as men to overcome their limits. In other words, by disguising themselves as men, the heroines in these three novels were able to find a new self. Also, even after they return to their family, they hold an equal position to men and try hard to achieve recognition for their value. This is different from heroine novels of early and middle periods.

Through this analysis on narration structure the aspect of conflict in the three novels can be seen. The main characters of the three novels experience conflict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The basic reason for the conflict they experience comes from the contraction of the situation. This is shown as conflict between people. In other words, conflict is expressed by a heroine with a strong wish for self-fulfillment who thinks of regaining women's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in an oppressive Confucian society. The oppressive Confucian ideology can be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raditional patriarchal morals and a male focused social structure. Therefore, in the three novels, the aspects of conflict can be divided to conflict between a person and society and conflict in oneself. The former is a conflict on traditional family ethics and a conflict on a male focused social structure. The latter is a conflict of self-identity in a Confucian society. By dividing the aspects of conflict that can be seen in each of the novels into three and studying them, the contradiction of a society, the will of the characters living in the society, and the intention the author wishes to express can be seen.

The main characters' wish for self-fulfillment can easily be seen through the attitude she has in settling the conflict. However, though the aspects of conflict were similar in the three novels, there was a certain difference in the method of settling the conflict. The heroine in "Okjuhoyeon" settled conflict through self-fulfillment that put value on external character and the heroine in "Honggyewoljeon" settled conflict through self-fulfillment through harmony between external character and

internal character. Lastly, the heroine in "Banghanrimjeon" settled conflict through self-fulfillment obsessed on internal character.

Through "Okjuhoyeon", "Honggyewoljeon", and "Banghanrimjeon", heroine novels from the later period, a new type of female that wished to destroy the existing contradictive structure was presented. This shows that there was a diversification of types of female characters from ancient novels.

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영웅소설은 임병양란이후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주인공이 지닌 탁월한 능력을 감추어두지 않고 실제로 사용해 세계와의 대결을 전개하는 양상”[1]을 보여주는 영웅소설의 유형의 하나인 여성영웅소설[2]은 그동안 작품 속에서 주변인으로만 존재했던 여성을 중심인물로 존재하게 했으며, 여성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초반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은 자기실현[3]을 위해서 뛰어난 능력을

---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p.101.

2) 여자주인공 중심의 영웅소설들을 일컫는 명칭으로는 성현경의 ‘여걸소설’, 정명기의 ‘여호걸계소설’, 여세주의 ‘여장군 등장의 고소설’, 전용문의‘여성계영웅소설,’ 손연자의 ‘여장군형 소설’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연구 대상 작품들의 여주인공의 출전 활약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용어들을 배제하고 영웅소설의 변모과정에서 이들 작품군의 위치에 주목하여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민찬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는 ‘영웅적인 일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라는 연구대상 작품들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62·63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정명기, 「여호걸계 소설의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여세주, 「여장군 등장의 고소설 연구」,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전용문, 「한국여성계 영웅소설의 연구」,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손연자, 「조선조 여장군형 소설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86

3) “자기원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이 되게끔 하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 가능성이라면, 자기실현은 이러한 가능성을 자아의식이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아의 결단과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3 p.119.

발휘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위기 극복이나 남편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대표작품이라 할 수 있는『박씨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능력을 남편의 급제를 도울 때 발휘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통해서 발휘한다. 영웅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며 남성의 지배 권력에 봉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여성영웅의 모습은 후대로 오면서 점차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여주인공은 남장을 하고 남성의 세계로 인식되어 오던 공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문과 나라를 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절실한 여성의 존재가치를 찾으려는 의지는 약하며,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이 보인다.[4] 대표적인 작품으로는『이대봉전』,『양주봉전』,『음양옥지환』,『여중호걸전』,『이봉빈전』,『김희경전』등이 있다.『이대봉전』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과 동등한 위치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지만 남주인공에 비해서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약하다.『여중호걸전』의 여주인공은 남장을 통한 과거급제로 황제의 총애를 받는 공신이 되지만 약혼자의 결혼소식을 듣고 남자로 살겠다는 소극적인 면이 드러난다. 즉 여주인공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절실한 여성의 존재가치를 찾으려는 의지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작품들에 비해서 후반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과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회의와 가부장제 사회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옥주호연』,『홍계월전』,『방한림전』등이 있다. 세 작품의 여주인공은 다른 여성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기존의 질서와의 정면대립을 통해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물의 신화적인 영웅성보다는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에 비중을 두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작품에서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극복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이은경,「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p.8.

우선 세 작품이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 작품들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띠며 작가의 의도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들 작품만의 독특한 서사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세 작품의 갈등양상을 연구할 것이다. 세 작품의 주인공은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다. 이들이 겪는 갈등의 본래적인 원인은 주어진 상황의 모순 속에서 파급되는 것들로 작품 속에서 인물과의 갈등을 통해서 표출된다. 다시 말해서 갈등은 자기실현 의지가 강한 주인공이 강압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되찾아야할 여성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인공에 의해서 표출된다. 이때 강압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정 윤리적 측면과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적 측면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즉 세 작품의 갈등양상을 전통적 가정 윤리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 혹은 유모와 갈등양상,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남녀 사이의 갈등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또한 소설에서 갈등의 양상은 앞에서처럼 개인과 사회의 갈등 형태뿐만 아니라 자아와의 갈등도 존재하게 되는데 세 작품에서도 역시 자기실현의 의지가 강한 주인공이 유교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변모 해결되어 가는 양상을 외적인격[5]에 치중한 자기실현, 외적인격과 내적인격의 조화를 통한 자기실현, 내적인격에 집착한 자기실현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세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이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들보다 자기실현의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과 기존의 질서에 정면대립을 통해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벗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아와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자아는 외부의 집단세계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양식을 익히게 된다. 이것을 융은 외적태도 또는 페르조나(Persona)라 하였다. 동시에 내적 세계, 즉 무의식계에 적응하는 가운데 외적 태도에 대응하는 내적 태도가 생기고 이것이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다. 외적 태도나 내적 태도는 거의 여러 개의 인격체처럼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외적 인격, 내적 인격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부영, 앞의 책, p.81.

1.2 연구사 검토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초기에는 발생, 구조, 유형 등과 관련되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유형분류(類型分類)에 있어서 성현경은 '여걸의 양상'에 따라 여성이 대원수가 되어 남성을 부원수로 부리는 유형, 남녀가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장수노릇을 하는 유형, 여성이 남성 밑에서 부장 노릇을 하며 그를 보필하는 유형, 여성이 남성과 함께 출전하지 않고 배후에서 도술로써 남성을 도와주는 유형으로 나누었다.[6)]

정명기는 '과거급제의 선후와 출정시 직위의 고하'에 따라 남성만 급제·남성만 출정, 입공하는 경우, 남녀가 동시 또는 선후에 급제하고 직위가 여고남저(女高男低)인 경우, 여성만 급제하고 남성은 출장입상하는 경우, 과거 급제·출정시 여성이 선행하고 남성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로 나누었다.[7)] 양인실은 '여성의 대남성(對男性) 지위, 처지'에 따라 배후에서 돕는 유형, 적극적 행동 유형, 여성 상위 유형으로 나누었고[8)], 여세주는 '여주인공의 가정 외적 참여활동'에 따라 은폐된 간접 참여형, 노출된 직접 참여형, 은폐된 직접 참여형, 노출된 직접 참여형으로 나누었다.[9)]

민찬은 '남녀이합구조'에 따라 여성주도에 의한 남녀 결합형, 여성우위에 의한 남녀대립형으로 나눈 바 있고[10)], 전용문은 '여주인공의 영웅화의 욕구'에 따라 음조영웅형, 일시남복영웅형, 남장영웅형, 남성지배영웅형으로 나누었다.[11)] 임병희[12)]는

---

6) 성현경, 앞의 논문.
7) 정명기, 앞의 논문.
8) 양인실, 「한국 고대 여성영웅소설의 연구-이조 여성의사회활동면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논문집』, 건국대학교,1980.
9) 여세주, 앞의 논문.
10) 민 찬, 앞의 논문.
11)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충남대 박사논문, 1988
12) 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 양상」,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

여성영웅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입신양명과 혼사장애의 결합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혼사장애가 중심이 된 '백학사전'계열과 입신양명이 중심이 된 '정수정전'계열로 나누었다. 이러한 연구는 작품 자체의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연구했지만, 구조상의 여러 모티프 중 한두 가지를 확대시켜 기준으로 삼은 결과 내용 중심의 분류가 되고 말았다. 박상란[13]은 여성영웅의 존재 자체보다 그의 일대기구조에 중점을 두고 여성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유형을 삽화형, 남성중심형, 여성중심형, 여선단독형, 가문중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여성영웅소설이 하나의 작품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들 다수의 논의들에서 여성주인공이 남장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방식이나, 여자임이 탄로 난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여성영웅소설의 의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도 한다.

특히 민찬[14]이나, 박상란[15]은 고전소설 일반의 구조적인 유사성이나 표현의 상투성 등을 전제로 하여, 여성영웅소설 속에서 여성이 남장을 통해 사회 진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여성의 영웅적 활약과 그에 따른 사회 진출이 허구적인 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성영웅이 일시적인 사회 진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일부다처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선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중심주의적 사고를 재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인경은「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16]와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17]에서 남성화된 여성영웅의 사회적 성취는 곧 여성주인공의 여성성을 소멸시키고 남성성만을 강조하여 기존의 남성중심적 봉건사회의 사고방식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고전 소설에 대한 여성중심적 시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영웅소설에 대해서도 여성의식의 측면을 중시하여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8]

---

13) 박상란,「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
14) 민찬, 앞의 논문.
15) 박상란, 앞의 논문.
16) 이인경,「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 국문과, 1992
17) 이인경,「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중앙문화사, 1995
18) 박명희,「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9

송태숙은 여성영웅소설이 군담과 탐색담이 확대되면서 여성중심 구조가 부각되었고 그로인해 전통적 여성성이 변모하고 여성의식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여성은 가부장제 아래 중요시한 덕목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19]

성현경은 여권신장· 여성해방을 구현하는 것처럼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의 확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20] 정병헌과 이유경은 여성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을 여성의식이 근대적인 모습으로 확장된 것으로 본다.[21]

조민화는 문학 작품을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저변의식에 깔린 남성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여성영웅소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 영웅의 형상화가 무엇을 표출하며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하여 여성의 정체성이나 자의식을 고찰하였고 조선후기의 여성의식의 확대를 포착하였다. [22]

진유민은 여성 영웅소설의 등장을 조선시대에 유교적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 되었다고 보는 데에서 벗어난 반증으로 본다. 따라서 유교적 사회의 강한 가부장제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로 여성 인물의 의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여성의 변화된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유형분류 위주의 논의들이 주가 되었고 여성의 행동과 갈등을 사회와 남성과의 관계 안에서만 논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의 신장과 남성중심적 작품 분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 하려는 움직임이 확대 되었다. 따라서 여성인물의 변화를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 상하 관계로 파악하려 하지 않고 역할의 확대가 가지고 온 여성의 주체적 의식·정체성의 확립을 분석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연숙,「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5.

19) 송태숙,「이봉빈전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20) 성현경, 앞의 논문.

21) 정병헌·이유경,「여성영웅소설의 이야기 전개방식」,『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p. 265.

22) 강민화,「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박씨전, 백학선전, 홍계월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3) 진유민,「여성영웅소설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믄, 2003.

2. 서사구조 분석

여성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이 사건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영웅소설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의 성별에 따라 지향하는 가치와 행위가 구별되기 때문에 영웅소설의 기본 구조형과 차이가 있다. 즉, 일반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영웅적인 투쟁과 입공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여성영웅소설은 주인공이 남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남성을 능가하는 활약상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24]에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25]는 다음과 같다.

(가) 고귀한 혈통의 무남독녀로 출생한다.
(나)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나다.
(다) 고난을 만난다.
(라) 남장가출로 고난을 극복한다.
(마) 수학에 의해 남성적 능력을 갖춘다.
(바)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오른다.
(사) 국가적 위기를 당한다.
(아) 대원수로 출전하여 위기를 해결한다.
(자) 여성의 본체를 드러내어 남성과 결합한다.

이에 비교하여 후기 여성영웅소설에 해당하는『옥주호연』,『홍계월전』,『방한림전』은 자기실현 의지가 부각되면서 그 구조에 있어서도 일반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각 작품의 서사구조를 통해 기본구조를 추출해 보고, 전기 여성영웅소설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겠다.

24) 이은경, 앞의 논문, 1992, p.11.
25) 전용문, 앞의 논문, 1988, p.157.

2.1 순차적 전개 양상

기본 구조	세 작품의 기본 구조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
(가) (나)	① 출생	유원경의 삼녀와 최문경의 삼남이 태어남.	홍시랑의 무남독녀로 태어남.	만득의 무남독녀로 태어남.
(다)	②남복개착	입신양명을 해서 효를 행하기 위해 스스로 남복개착.	부모는 계월이 단명할까 걱정되어 남복을 입힘.	관주는 남아의 기질이 있어 스스로 남복개착.
(라)	③부모와 이별	삼녀의 남복개착에 대한 부모의 반대가 심하자 가출.	5세 때 난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	관주는 8세에 부모와 사별. 스스로 치장하고 가정 이끔.
(마)	④수학	삼남과 결의형제하고 동문수학.	계월은 여공의 구조를 받아 그의 아들 보국과 동문수학.	관주는 유모의 걱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병서와 무예를 스스로 익힘.
(바)	⑤ 응과, 벼슬에 오름	스승의 교시를 받아 새로운 창업에 가담하여 조광윤의 부하가 됨.	과거에 응시하여 계월은 장원, 보국은 부장으로 급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
(사) (아)	⑥전쟁의 출전과 공로	삼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광윤이 보위에 오르도록 도와줌.	서관, 서달의 침입하자 계월은 대원수, 보국은 부원수로 싸움에 출전, 승리함. 계월은 적을 추적하여 벽파도에 갔다가	*⑥~⑨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남. ⑧→⑥→⑨→⑦ 북호의 침입을 격퇴.

			부모와 상봉.	
(자)	⑦신분탄로	황제의 계략에 빠진 삼녀는 하는 수 없이 신분을 밝힘.	계월은 득병하여 어의에게 신분을 들키자 천자에게 기군(欺君)한 죄를 상소함.	*관주는 도사의 예언을 듣고 죽기 전에 황제에게 스스로 여화위남을 밝힘.
	⑧남녀결연	천자와 태후는 앞장서서 육인의 혼사를 주창.	천자는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두게 하고, 보국과의 결혼을 성립시킴.	*관주는 병부상서의 중매로 혜빙소저와 결혼. *관주는 낙성이라는 아이를 양자로 삼음.
	⑨남녀대립	*「홍계월전」처럼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삼녀의 신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삼남과의 대립이 ⑦부분에서 존재함.	-계월이 남편의 애첩을 엄벌에 처하자, 보국은 계월을 미워함. -다시 한 번 반란군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계월은 위기에 처한 남편을 구함.	*부부역할에 대한 의견대립.
	⑩가정으로 회귀	육인 금의환향하여 부모와 상봉, 가정 번창.	직위를 유지한 채 가정으로 복귀, 가정 번창.	관주는 39세로 죽음. 천상계로 돌아감.

이처럼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본구조는 일반 여성영웅소설의 구조에 이질적인 요소 ⑨, 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이 기본구조 (나)와 (다)사이에 '정혼' 단락을 포함하고 (자)단락으로 끝나면서 '남녀이합' 구조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과 달리 세 작품에서는 '남복개착'과 '남녀 대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각 단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2 서사단락의 의미

① 주인공의 출생

세 작품의 주인공은 아들이 없는 고귀한 가문의 만득녀로 태어난다. 이같은 조건은 가족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여성인물의 남복개착 동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사태를 바로 잡아서 가문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는 백행의 근본으로 인식되어 온 효 논리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가족주의적 당위로서 보편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26] 즉 대를 이을 남아가 없는 집안이라는 배경적 정황이 여주인공의 남복개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세 작품의 서두에는 주인공 부친의 사람됨과 누대 명문가 후손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만한 가까운 혈족이나 친지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27] 주인공은 가까운 혈족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인공에게 스스로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의 출생부터 소설이 시작되지만 세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출생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거나 여주인공의 출생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며 남주인공은 평범한 남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② 남복개착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에서 '남장'이라는 문제는 여주인공의 독특한 존재방식이면서 동시에 일반 영웅소설과는 다른 차별적 특성을 지니게 하는 요소이다.[28] 즉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일반 영웅소설의 주인공에서 벗어

---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p.75.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위의 책, p.75.
28)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제13집, 2000.9, p.283.

나고 영웅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여성소설의 주인공에서도 벗어난다.

장시광은 남복개착을 여성의 자아실현을 표현한 것이 아닌 여성의 남성 선망으로 보았다. 따라서 여주인공이 남복개착을 하고 영웅적 활약을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진 것같이 보이지만 이면으로는 유교적인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2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공의 남복개착이나 가정으로 회귀하는 부분을 여성영웅소설이 지니는 한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성영웅소설이 향유되던 조선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사회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역할 간의 고정성을 당위로 삼는 유가적 가치 관념[30]을 엄격하게 지켰다. 이는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내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부인은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까닭으로 전제하는 뜻이 없고, 삼종곧 세 가지 따라야 할 법도가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따라야 할 법도란, 집 곧 친정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하지 감히 스스로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31]

> 아내는 집안에서 식사를 주관하여 오직 술과 밥과 의복에 관한 예절을 일삼는다. 그로 하여금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가정의 근본이 되는 일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아내가 총명하고 재주와 지혜가 있어서 학식이 옛 일과 오늘 일에 통달하더라도 마땅히 바르게 남편을 도와서 그 부족한 점을 권할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암탉이 새벽에 울어서 화를 불러오게 한다는 말처럼 하지 말 것이다.[32]

---

29) 장시광,『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6, pp.46~49.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앞의 책, p.78.
31) “婦人은 伏於人也니라 是故로 無專制之義하고 有三從之道하니 在家엔 從父하고 夫死엔 從子하며 無所敢自遂也니라”
소혜왕후 한씨, 김종권 역주,『內訓·戒女書』, 명문당, 1998, pp.75-76.
32) “婦는 主中饋니라 唯事酒食衣服之禮耳언정 國에 不可使預政이오 家에 不可使幹蠱니 如有聰明才智하여 識達古今이라도 正當輔佐君子하여 勸其不足이언정 必無牝雞晨鳴하여 以致禍也니라”
소혜왕후 한씨, 김종권 역주, 위의 책, p.86.

조선사회에서는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남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강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고 싶어 했던 여성에게 남복개착의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남복개착은 여주인공이 기대하는 이상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영웅소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작품에서 그 의미는 차이를 보인다.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에서 남복개착은 자신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거나 곤경에 처한 남편과 국가를 구해내는 간접적인 의미이다.[33] 반면에 세 작품들에서의 남복개착은 단순한 위기모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의식이 강한 여주인공들은 원하지 않는 존재방식을 강요받고 받았을 때 자신을 고집하며 남복을 선택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작품에서 주인공의 남복개착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주인공들이 기존의 성이데올로기부터 차단된 채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③ 부모와 이별

주인공의 시련은 영웅소설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이 획득된다. 대부분의 주인공이 영웅적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는 부모와 분리되면서 시작된다. 남성영웅에 있어서 부모와의 이별은 부모의 도움 없이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잠재되어 있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여성영웅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 여성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이별을 통한 고립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깨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그렇지 않고 나약하고 의존적인 여인상을 계속 고수한다면 위기에 처한 여성은 자결을 통한 순결을 지키는 길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34] 즉 여성영웅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이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밖에 없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

33) “중기 여성영웅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김희경전』의 설빙은 대원수로 싸움에 출전, 위기의 국가와 남편을 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대개가 남녀결합 후 여성이 본연의 신분으로 돌아가 순종적인 아내가 된다. 여성의 뛰어난 영웅행위는 남편을 구하기 위한 강도 높은 애정의 해우이일뿐 여성의 진정한 사회적 활동이 아니다.” 이은경, 앞의 논문, p.17.

34) 이은경, 위의 논문, p.18.

여주인공들은 부모와 이별과 같은 시련을 접함에 있어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부모와의 이별에 충격을 받고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이대봉전』의 주인공은 양친의 죽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나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예를 들어『옥주호연』의 주인공은 여도를 강요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부모와의 이별이라는 고난을 선택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홍계월전』의 주인공은 전란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하게 되지만 슬픔을 이기고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그리고『방한림전』의 주인공 역시 양친의 갑작스런 죽음에 당황하지 않고 치상(治喪)은 물론 가계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수학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처럼 세 작품의 주인공들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곧 자기실현의 욕망이 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④ 수학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남성적 기질이 뛰어나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주인공들에게 남성과 대등한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면 그 기질은 여도(女道)를 익히게 되면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여주인공들은 성역할은 무시하고 남성에게만 허락된 병서나 무예를 익히고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는 여성들도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나라에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남성적 수학과정은 여주인공에게 공적 영역으로의 입문을 가능하게 하며 여도를 강요했던 기존의 성역할에 의해 소외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준비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⑤ 응과, 벼슬에 오름

여성영웅들은 남복으로 개착하고 남성적 수학과정을 거친 후 자신의 기량을 펼칠 기회를 얻으며 과거라는 공식적인 관문을 통해 남성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사회로 진출한다. 이것은 비록 여주인공이 남복 개착한 상태이지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주인공들은 과거급제 이후에 한림학사, 어사 등과 같은 남성조차 획득하기 힘든 권좌에 오르게 되고 그리하여 주인공은 개인적인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고난 및 위기까지도 해결할 위치에 오른다.[35]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다름은 생물학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능력적인 차이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또한 여주인공이 남성의 고유영역인 과거에서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 권위적인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⑥ 전쟁의 출전과 공로

전쟁을 통해 과거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여주인공의 영웅성이 강조되고 본격적인 사회화 과정이 시작된다. 전쟁하는 행위는 남성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사회적 행위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생명의 생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남성은 외적을 방비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이므로, 전쟁은 여성이 배제된 남성 전유의 행위인 것이다. 남성은 전쟁행위를 통하여 공격적이며, 맹렬한 힘의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더욱 남성답다는 사회의 인정을 얻게 된다. 무력(武力)은 남성의 상징이라는 통념이 성립하는 이면에는 여성은 무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므로, 전쟁하는 여성이란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다.[36] 다시 말해 전쟁은 여주인공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한다. 또한 무능력한 남성을 비웃으며 새로운 체제를 세우려는 여성의 모습은 가부장적 질서도 개혁시킬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⑦ 신분 탄로

남복 개착하여 남성과 같이 공명에 뜻을 두었던 여주인공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게 된다.

* 타의에 의한 탄로:『홍계월전』,『옥주호연』
* 자의 의지에 의한 상소:『방한림전』

35) 강화수,「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p.87.
36) 박명희, 앞의 논문, p.41.

초·중반에 해당되는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은 일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남복개착을 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신분을 밝힌다. 『방한림전』의 여주인공은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만 차이가 있다.

우선 『방한림전』에서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남복개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례까지 남장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일시적인 위기가 해결된 후 가부장적 질서로 복귀하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후 스스로 여성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타의에 의한 신분이 탄로 난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 탄로 난 경우보다 주변인물과의 갈등이 심하다. 그 원인은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남성중심적인 지배체제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탄로 이후 이어지는 결혼의 단락에서는 남녀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세 작품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신분탄로 이후에 기존의 성역할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천자를 기망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무너뜨린 죄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충성심과 뛰어난 능력에 감복한다. 즉, 여성영웅의 신분탄로는 위장한 남장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남성이 일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⑧ 남녀결연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결혼은 중세적 남녀의 상하관계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미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제후의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한 주인공에게 있어서 결혼은 할 수만 있다면 거부하고 싶은 사회제도였을 것이다.[37] 그러므로 결혼으로 인하여 남녀주인공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기존의 질서에 편입하게 하려는 남성과의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은 남녀이합의 과정이 거의 모든 줄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중기 여성여웅소설에서는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로 복귀하면서 해결된다. 예를 들어, 『이봉빈전』에서는 남녀이합 구조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남녀 결연에 의해 여성의 존재는

37) 강화수, 앞의 논문, p.93.

미미해지고 만다. 비록 주인공이 남성보다 대등한 또는 훨씬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영웅적 활약상을 벌이다가도 여성임이 드러나게 되면, 천자의 중매로 인해 여지없이 남주인공과 결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작품은 끝나게 된다.[38] 따라서 작품에서 여성의 자기실현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세 작품에서는 남녀의 결연은 여성의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즉 전통적인 남성우위적 지배 사고를 고수하려는 남성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여성과의 대립의 시작을 의미한다.[39]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여성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인공은 천자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례에서도 남편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지키나간다. 예를 들어 『홍계월전』의 여주인공은 입신양명하여 남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성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천자의 중매로 보국과 혼인하게 된다. 하지만 주인공은 결혼 이후에 남편에게 종속되는 아내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적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길 원했다. 이러한 의지는 천자의 도움으로 벼슬을 그대로 지니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

그런데 『방한림전』에서의 결연은 『옥주호연』이나 『홍계월전』과는 달리 신분탄로 이전에 여성끼리 결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연 이후에도 기존의 사회질서로 편입하지 않으려는 점과 자기실현의 의지가 강한 점은 『옥주호연』이나 『홍계월전』의 주인공과 동일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 나타난 결연은 남성과의 대립을 통한 여성의 자아발견 및 새로운 여성상을 구축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⑨ 남녀 대립

결혼 이후 발생한 남녀대립은 가정 내에서 주변부의 삶을 강요하는 형식적인 권위주의와 여성은 더 이상 타자로서가 아니라 자아로서 존재하려는 실질적인 여성의식의 대립으로 해석할 수 있다.[40] 다시 말해 결혼 이후에 남녀대립은 결혼을 통해 여성이 가부장적 질서하에 들어온 이상 자신의 지배권하에 들어온 것이라 판단

38) 강화수, 위의 논문, p.93.
39) 이은경, 앞의 논문, p.23.
40) 강화수, 앞의 논문, p.96.

하고, 열등감의 변질로 인한 과도한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를 표출하는 남성과 이를 거부하는 여성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홍계월전』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남주인공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근거하는 남성우월주의를 앞세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부인의 군령을 무시하고 덤비다가 자신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안위마저 위험에 처하게 한다. 기존의 질서에 사로잡힌 남주인공에 비해서 여주인공은 가부장적 질서를 수긍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 과정에서 여주인공은 무능력한 남편을 위기에서 구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을 인정하게 한다. 이렇게 여주인공은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제도를 비판하고 자기실현의 의지를 포기 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남편을 하늘로 여기고 남편의 출세에 의해서만 여성의 지위도 확보될 수 있었던 조선사회에서 남녀의 직접적인 갈등이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기존의 질서가 깨어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남녀 갈등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의 자아도 회복시키고 있다.

⑩가정으로 회귀

세 작품에서도 역시 남편과의 화해함으로써 여성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자자손손 충성하는 집 안을 만드는 해피엔딩의 전통적인 고소설의 결말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온 것은 다시 예속적인 여성의 신분으로 되돌아 온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 즉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성으로 변화되어 여성의 고유영역인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다.[41] 즉 여주인공은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남편에게 재인식시키고, 여도라는 것을 내세워 무조건적인 복종과 희생만을 내세운 남편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가부장적 편견이 사라지게 한다.[42]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남녀의 수직적인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여주인공들의 소망이 수용되고 있다.

---

41) 박미란,「여성영웅소설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p.49.

42)『방한림전』에서 여주인공은 표면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이 된 여주인공은 남성의 권위를 부인에게 요구하는 역설적인 방법이 드러난다. 그 결과 동성 부인과 의견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사람은 대화로써 갈등을 해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적인 결혼관을 제시한다.

3.갈등의 전개

소설은 “사건이 일어난 세계의 전말에 대한 심미적 기록”[43]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 사건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갈등이다. 갈등을 통해서 주제의식이나 당대 사회 변화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 갈등은 중요하다.

문학에서 갈등이론은 사회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의 이론들을 수용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둘 이상의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갈등에 주목한다. 따라서 갈등의 동기는 둘 이상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또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나 수단을 서로 가지려 할 때 빚어진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내면세계의 갈등관계에 주목한다. 갈등의 동기는 프로이드의 문화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프로이드는 문화는 생물적 충돌과 사회에의 적응 욕구가 충돌해서 생긴 산물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때의 두 가지 욕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44] 특히,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융은 갈등의 원인을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 사이의 분리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45] 그의 학설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에는 그림자 즉 아직 어둠 속에서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리고 보통 ‘그림자’ 다음에는 ‘아니마, 아니무스’[46]의 의식화가 뒤따르고, 그것을 의식했을 경우는 자기실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의식의 자아는 외적세계와 내적세계에 적응하려는 욕구를 가진다. 이때

---

43) 한용한,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2000, p.54.
44) 조남현, 『한국 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88, pp.16-18.
45) 이부영, 앞의 책, pp.58-125.
46) “아니마, 아니무스란 무의식 속에 있는 내적인격의 특성을 말하며 간단히 말해서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잇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다.”, 이부영, 위의 책, p.87.

자아는 외적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외적세계의 적응에 필요한 행동양식인 페르조나를 익힌다. 인간이 집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교육을 통해서 페르조나를 형성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맹신하면 자아는 그의 내적인 정신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이때 자기동일성[47]은 분열되고 이러한 자기 동일성 상실을 자아가 인식함으로써 갈등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동일성 상실의 원초적인 원인은 집단사회인 외부세계와 자아의 욕망의 괴리에 있다. 자기동일성 상실은 자기 본연의 전체성에 대한 개인의 욕망을 외부세계가 억압하고 차단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동일성 회복은 세계와 자아의 대립 없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과 세계는 대립하게 되고 이러한 대립으로 개인의 갈등은 파생되는 것이다.

융의 이러한 학설은 여성영웅소설의 갈등양상을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내적인격과 외적인격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갈등의 형태는 크게 외부적 세계와의 갈등과 인간의 내면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부적 세계와의 갈등양상은 다시 인간과의 갈등과 사회와의 갈등으로 나누어진다.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에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 역시 인간과의 갈등과 사회와의 갈등양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작품에서 인간과의 갈등은 결국 주어진 상황의 모순 속에서 파급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갈등은 자기실현의지가 강한 주인공이 강압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되찾아야할 여성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인공에 의해서 표출된다. 따라서 세 작품의 갈등양상을 전통적 가정 윤리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 혹은 유모와의 갈등양상과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남녀 사이의 갈등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유교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내면적 갈등양상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 유교적 이데올로기 사상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으려는 여성의식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47) 자기동일성이란 내적자아와 외적자아가 서로 합일을 이루어 갈등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자아의 분리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리적 갈등은 그만큼 크게 된다.

3.1 전통적 가정 윤리에 대한 갈등

세 작품에서의 독특한 면은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거나, 그러기를 원하는 남성의 직접적인 사고와 가부장적 전통을 거부하고 남녀가 동등한 또는 그보다 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여성의 수평적인 사고의 대립이 나타난다는 점이다.[48] 이러한 대립은 가정 내부에서 자의식이 강한 여성에게 여도를 강요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여성은 가족 안에서 남존여비에 입각한 열등한 예속적 존재가 되었고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이 되는 동시에 남편의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후기 동족마을 형성과 족보작성 등은 가부장적 사회체제를 확대·강화시키는 이념적 물적 토대가 되어 여성억압에 기여하였다.[49] 이처럼 여성에 대한 불평등 구조는 여성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 내면화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포기하고 질서에 순응하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정절과 현모양처 등이 여성들의 대표적인 덕목이 되었다. 하지만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내적인격 즉 아니무스의 표출에 적극적이었다. 여주인공이 억압된 여성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을 하려는 노력은 곧 가부장적 질서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과의 갈등을 빚어낸다.

그 대립양상은 『옥주호연』, 『방한림전』에서 자기실현을 하려는 여주인공과 가부장적 사회의 질서 즉 여도(女道)를 강요하는 부모·유모 사이에서 발생한다. 『옥주호연』은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유일하게 부모와 직접적인 갈등양상을 보이는 작품이다. 이와는 달리 『방한림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난 후 유모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옥주호연』의 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졀셰ᄒᆞᆫ용ᄉᆡᆨ과선연ᄒᆞᆫ품질이비상특이ᄒᆞ고 문경이통민ᄒᆞ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에 모르는 것이 없고 매일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달리기를 익혔다.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된 어머니는 삼녀

48) 이은경, 앞의 논문, p.28.
49) 정연지, 「여성영웅소설의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5, p.6.

에게 여자라면 당연히 따라야하는 여자지도(女子之道)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왕시알고가장민망히녀겨삼녀를계칙왈녀ᄌᆞ지도는ᄂᆡ힝을닥그며방젹을힘써규문외나지아니ᄒᆞ미맛당ᄒᆞ거ᄂᆞᆯ너의는엇지외도를힝ᄒᆞ어고인의계득죄ᄒᆞ믈감심고져ᄒᆞ는다우리팔지무상ᄒᆞ여너이의세흘어드ᄆᆡ비록녀지나어진ᄇᆡ필을어더우리신후를의탁ᄒᆞ가ᄒᆞ엿더니이졔너의조곰도규녀의힝실을ᄉᆡᆼ각지아니ᄒᆞ니이는불가ᄉᆞ문어타인이라.만일네부친이알지면별단거죄이ᄒᆞᆯ거시ᄆᆡᄂᆡ찰하리쥭어모로고져ᄒᆞᄂᆞ니너의소견은엇더ᄒᆞ뇨[50]

삼녀는 어머니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도를 규방의 소소한 예절이라고 본다. 그리고 효를 행하는 방법에는 여도를 지켜서 어진 배필을 얻는 방법보다는 입신양명해서 효를 행하는 것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어머니를 설득한다.

소녀등이엇지부모의은덕을모로고ᄯᆞᆺ을거역ᄒᆞ리오마는소녀등이규방의소소ᄒᆞᆫ녜절를직히다가는부모긔영화를뵈올길이업ᄉᆞ온지라셕의당ᄐᆡ종의누의장원공쥬도평ᄉᆡᆼ무예를ᄇᆡ화쳔하의횡힝ᄒᆞ여빗난일흠이지금류젼ᄒᆞ오니쇼녀등도이일를효측ᄒᆞ여공명을셰워부모긔현양코져ᄒᆞ옵고ᄒᆞ믈며방금쳔히ᄃᆡ란ᄒᆞ오미쇼녀의득시지츄여ᄂᆞᆯ엇지ᄒᆞᆫ갓녀도를직희여셰월를허비ᄒᆞ리잇고[51]

삼녀의 설득에 어머니는 탄식만 한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삼녀에게 여도를 강요한다.

① 그후의삼소졔ᄯᅩ후원의서무예를익ᄉᆡ뉴ᄉᆡᆼ이ᄃᆡ경ᄒᆞ여궁시와병서를불지르고왕시를ᄃᆡ칙왈녀ᄌᆞ는그어미ᄒᆡᄉᆞ를본밧ᄂᆞ니녀아의힝ᄉᆞ를잡죄미업스믄이엇진일이뇨일후다시이런일이이스며부부지간이라도결단코용셔치아니ᄒᆞ리라

② ᄂᆡ팔지긔구ᄒᆞ여한낫아들이업고다만밋는지너의ᄲᅮᆫ이러니이졔네의이렷릇ᄑᆡ도를힝ᄒᆞ미누를원ᄒᆞ리오오ᄂᆞᆯ노조ᄎᆞ부녀지외를ᄭᅳᆫ허다시ᄃᆡ면치아니ᄒᆞ리라

③시녀츈잉이겻히잇다가우으며왈우리삼소져는타일원융ᄃᆡ장이되려ᄒᆞ여ᄆᆡ양무예를슝상ᄒᆞ오니불구의ᄃᆡ홰밋출가근심ᄒᆞᄂᆞ이다ᄒᆞ거ᄂᆞᆯ ᄉᆡᆼ이ᄃᆡ경왈ᄂᆡ젼일의ᄎᆞᄉᆞ를엄금ᄒᆞ엿더니종시듯지아니ᄒᆞ믄일정부모를쥭이고문호를망ᄒᆞᆯᄌᆞ식이ᄆᆡ찰하리ᄒᆞᆫ나를쥭어둘

50)『옥주호연』 木板本, 京城; 白斗鏞家, 京城府 仁寺洞 翰南書林, 1920. 국립중앙도서관본, p.7. 다음 인용문부터는 면수만 표기.
51)『옥주호연』, pp.7-8.

을징계ᄒᆞ리라ᄒᆞ고취중노기를것잡지못ᄒᆞ여칼을들고후졍으로드러가려ᄒᆞ거ᄂᆞᆯ왕시울며왈어린아희샹업슨노름거리로ᄃᆡᄉᆞ를삼야천뉴을쓴코져ᄒᆞ나엇지ᄉᆞ람의참아ᄒᆞᆯ빅리오[52]

삼녀가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자지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취하는 방식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삼녀를 설득하려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① 경고→ ② 강력한 경고 → ③ 위협'의 방법으로 삼녀에게 여도를 강요한다. 아버지 유원경은 세 자매가 수긍할 만한 논리도 내세우지 못하면서 여자의 신분을 무조건 위협하려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가장의 모습[53]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옥주호연』에서 여자지도를 행하지 않은 딸과 아버지의 갈등은 자신의 내면과 사회와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갈등이나 유교적인 질서에 편입하지 않으려는 삼녀와 사회와의 갈등이라 할 수 있어 갈등 양상의 간접적이라 할 수 있다.[54] 결국 삼녀와 아버지의 갈등은 유교적 관념인 '효'를 내세워 시대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삼녀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준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은 한 공간에서 계속 지낼 수 없게 하는 이 갈등은 삼녀가 가출하면서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이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강력했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가부장적 질서도 자기실현의 의지만 있으면 붕괴할 수 있는 이념임을 암시하고 있다.

『방한림전』의 여주인공도 『옥주호연』의 삼녀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시서백가를 익히는 등 남성적 수학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옥주호연』의 삼녀가 가출하면서 남장을 하는 것과는 달리 『방한림전』의 주인공(방관주)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남장을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모님의 태도 때문이다.

긔상이 쥰수ᄒᆞ야 규리독녀의 거동과 신양이 날로 늠늠ᄒᆞ야…(중략)…ᄇᆡ야흐로 말을 일으ᄆᆡ 글ᄌᆞ를 가라친니 ᄒᆞᆫ아ᄒᆞᆯ 드러 열을 통ᄒᆞ고 열을 드르면 쳔을 ᄭᆡ친니 부모 ᄋᆡ즁ᄒᆞ야 아달 읍스믈 ᄒᆞᆫ치 안니ᄒᆞ고 홍금ᄎᆞ의로 입피되 문빅쇼졔 쳔셩이

52) 『옥주호연』, pp.8-10.
53) 여세주, 앞의 논문, p.91.
54) 김현옥, 「옥주호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pp.62-63

쇼탈ᄒᆞ고 금소ᄒᆞ야 취삼으로 체긴 옷슬 입고ᄌᆞ ᄒᆞ난지라 방공ᄂᆡ외 녀ᄋᆞ의 ᄯᆞᆺ슬 맛쵸아 쇼원ᄃᆡ로 남복을 지여 입피고 이직 어린고로 여공을 가라치지 안고 오직 시셔를 가라친니 방쇼제 나히 어리나 셔공이 날로 장진ᄒᆞ야 시셔빅가를 무불통지ᄒᆞ야[55]

방관주는 '천성이 소탈하고 검소'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탈한 옷 입기를 원한다. 부모도 방관주의 뜻을 존중하여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공보다는 남성들이 갖추어야 할 글공부나 무술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기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녀의 역할 구분보다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고를 엿볼 수 있다.[56] 방관주는 남성적 수학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여성성은 숨기게 된다. 이때까지는 방관주의 아니무스 표출을 부모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방관주가 8살 때 그녀를 이해해주던 부모와 사별하고 난 후 유교적 질서와 갈등이 시작된다.

방관주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남성적 수학과정을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역할까지도 완벽하게 수행해서 친척들까지도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

규구의 어긔미 읍셔 친쳑과 노복으로 더부러 부모 양예를 지ᄂᆡ고 스ᄉᆞ로 가ᄉᆞ를 다ᄉᆞ려 삼ᄉᆞᆼ을 극진니 밧드러 죠셕 읍혈지통을 방인이 감동ᄒᆞ더라…(중략)… 독셔를 부즈런이 ᄒᆞ고 더욱 의ᄉᆡ 여도의 다다라난 ᄂᆡᆼ낙ᄒᆞ야 일양 남ᄌᆞ로 쳐신ᄒᆞ고[57]

그러나 방관주가 남복개착을 하고 남자의 역할을 하는 행위는 당대의 윤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반규범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58] 『방한림전』에서는 유교적 전통 사고를 지닌 유모가 그러한 역할

55) 『방한림전』: 『백년전의 경고, '방한림전'』의 부록(p.363)에 수록된 「방ᄒᆞᆫ임젼」나손문고본(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이), p.364. 다음 인용문부터는 면수만 표기.
차옥덕, 『백년전의 경고, '방한림전'』, 아세아 문화사, 2000.
56) 정병헌·이유경, 앞의 책, p.306
57) 『방한림전』, p.364.
58) 장시광, 「'방한림전'과 여성인물, 그리고 동성결혼」,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 ksi한국학술정보(주), 2006, pp.252~253.

을 하고 있다. 유모는 그의 실체를 알고 있는 존재이며 또한 유일하게 방관주의 여성으로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유모는 방관주가 중요한 고비(과거 응시, 결혼, 입양)에 부딪칠 때마다 몇 차례 설득한다.

① 이졔 쇼져이 방년이 구셰라 규리의 녀ᄌᆞ 십셰이 불츌문외라ᄒᆞ온니 원컨ᄃᆡ 공ᄌᆞ난 도라 ᄉᆡᆼ각ᄒᆞ시고 우온 거죠을 그만 긋치ᄉᆞ 나종을 어ᄌᆞ럽게 말으ᄉᆞ 션노야 부인 영혼을 평안히 ᄒᆞ쇼셔[59]

② 가치 안타 우리 낭군의 혼ᄉᆞ난 옥갓튼 군ᄌᆞ의 잇스니 읏지 규수의 잇스리요 이렷튼 고희ᄒᆞᆫ 거죠를 ᄒᆞ시고 나죵을 엇지려 ᄒᆞ시닛가[60]

③ ᄉᆞᄉᆞ의 부인과 낭군은 질기신니 졍히 기동의 불이 붓난ᄃᆡ 연작이 오히려 질긴다ᄒᆞ던니 흡ᄉᆞᄒᆞ도다 만물쵸목 금슈 다 일흠니다 음양의 드난게 ᄲᆞᆺᄲᆞᆺᄒᆞ거날 낭군과 부인은 인윤을 ᄉᆞ졀ᄒᆞ시고 여광니 이십니 지나 계시거날 두 쇼져 홍옥쵸슌이 앗갑고 우흐로 양위노야 목쥬을 근심ᄒᆞ나 이 장ᄎᆞ 나죵이 엇지되잇고 더욱 부인은 침묵ᄒᆞ시고 가지록 고ᄒᆞᄉᆞ 지금갓 실상을 존당의 고치 안이ᄉᆞ 일양 주표을 감초아 스ᄉᆞ로 무ᄌᆞᄒᆞᆫ 체 ᄒᆞ신니 읏지 고이치 안이릿고 원컨ᄃᆡ 양위 쥬인은 계교을 ᄉᆡᆼ각ᄒᆞᄉᆞ 진짓 군ᄌᆞ을 으드ᄉᆞ 황영의 ᄌᆞ미 갓타시미 올흘가 ᄒᆞ난니 쳡니 누셜코ᄌᆞᄒᆞ나 낭군이 ᄒᆞ 강열ᄒᆞ신니 발셜이 어려워 지금 항잉ᄒᆞ나 읏지 ᄋᆡ달지 안이릿고 쇼공ᄌᆞ 오라지 안야 부인을 으드련이와 우리 상공과 부인은 어ᄂᆡ 시졀의 이윤을 ᄎᆞ릴고[61]

유모는 방관주에게 남장을 벗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유한다. 하지만 방관주는 그때마다 유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①′ ᄂᆡ 님의 션친과 모명을 밧ᄌᆞ와 남아로 힝ᄒᆞᆫ지 십년이 거의요…(중략)…ᄂᆡ 맛당이 입신양명ᄒᆞ야 부모의 후ᄉᆞ를 밋ᄂᆡ린니 어미ᄂᆞᆫ 괴로온 얼ᄂᆞᆫ을 다시 말나 ᄂᆞ의 본ᄉᆞ을 타인게 말을 말몰 ᄇᆞ라노라[62]

②′ 미소 왈 이난 ᄂᆡ 혜아리미 잇난니 모로미 어미난 말만 츌구치 말고 길예나 쥰비ᄒᆞ라 이목이 허다ᄒᆞ니 유모의 구셜로써 나의 쳘옥갓튼 마음과 일ᄉᆡᆼ을 희짓

59) 『방한림전』, p.364.
60) 『방한림전』, p.370.
61) 『방한림전』, p.379.
62) 『방한림전』, p.364.

치 말나[63]

③′ 만일 고이혼 소문이 잇슬진ᄃᆡ 비록 졋멱여 품속의 은양혼 은혜잇스나 결연이 용셔치 안이리라[64]

이처럼 방관주와 유모 사이에 남장(男裝)의 지속 對 탈남장(脫男裝)이라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다. 방관주와 유모의 갈등도『옥주호연』에서처럼 표면적으로는 인간과 인간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결국 방관주의 인생관과 당대 사회의 유교적 여성관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모의 사고는 지극히 당시대적인 것으로서 유교적 질서의 틀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이 갈등의 원인은 비슷하나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관계의 질서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갈등의 전개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방관주와 유모는 주인과 노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방관주가 일방적인 명령으로 갈등이 전개된다. 이는 방관주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분명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유교이념인 상하 신분질서까지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방관주는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남성의 역할을 완벽하게 모방해버린다.

또한 이러한 유모와의 갈등을 통해 방관주가 앞으로 입신양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갈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향력이 미약한 위치의 인물인 유모를 당시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대표자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 방관주가 겪게 될 갈등에 어렵지 않게 그의 의지를 펼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전통적 가정 윤리에 대한 갈등은 스스로 아니무스를 자각한 여주인공이 유교적 질서에 편입하지 않으려는 과정 즉 여도를 수학하지 않는 과정에서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 의해 남장을 하고 남성적 수학과정을 하는『홍계월전』에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주인공이 남성중심의 지배질서를 강요하는 남편과의 갈등을 통해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실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부장적 윤리의 모순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내려고 노

63)『방한림전』, p.370.
64)『방한림전』, p.380.

력하는 여주인공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옥주호연』에서 여주인공과 부모의 갈등을 통해 여성들의 효 사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영웅소설의 효행은 일반여성소설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데 일반여성소설의 주인공은 『심청전』과 같이 대개 자신을 희생하면서 효행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성영웅들은 적극적인 영웅적 행위를 전개함으로써 효행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65] 다시 말해 전통적인 가정 윤리에는 입신양명을 해서 효를 행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허락되었지만 여주인공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즉 여주인공에게는 효를 행한다는 목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방법적인 차원에서 남녀를 구별해서 효를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방한림전』에서 제2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유모와의 갈등을 통해서 여도를 지키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갈등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전개는 쉽게 주인공의 승리로 이어졌다. 그 이유는 유모가 신분상 하위에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인생에 큰 장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통해 여성주인공의 아니무스적 성향이 얼마나 강렬한지 확인할 수 있다.

3.2 남성중심 사회 구조에 대한 갈등

여성영웅소설은 남복개착을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사회적 공업을 이루더라도 신분이 탄로나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조선사회는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주인공은 남복개착을 했을 때 자신의 아니무스적 성향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다시 남성중심으로 구축된 가족질서에 편입하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질서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여주인공의 갈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활약을 통해 자기실현을 경험하고 성취해본 주인공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방식을 강요받고 있기에 더욱 자신을 고집한다. 그 결과 통념적 여성역할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65) 이은경, 앞의 논문, p.47.

조선의 지배이념인 유교는 주로 음양의 논리로써 남녀의 성역활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만물은 음·양의 적절한 배합과 유전에 따라 형성되며 이는 남녀의 교합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 음과 양의 원리를 드러내는 존재이며, 이 양자는 결코 뒤섞일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 둘은 하나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또한 주역(周易)의 남녀간에 따르면 남성은 우주창조의 근원이며, 천상적인 것, 움직임, 강한것을 나타내는 데 반해, 여성은 창조된 것을 유지하는 지성적인것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상징화되며, 이러한 단순한 남녀 구별은 권력이 집중화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사회가 조직화됨에 따라서 위계질서적인 남존여비의 이념으로 굳어진다.[66] 그러므로 남존여비의 사상은 남성 지배적인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남녀의 신분과 위치를 구분하고, 상하의 위치와 우열의 가치를 설정하여 남성과 여성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사회적 영역은 여성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에게는 사회적 영역을 지탱시킬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게 했다. 그러나 세 작품에 등장하는 자의식이 강한 여주인공들은 사회적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서 위에서 설명한 사상적 배경을 근거로 하는 갈등이 남녀관계, 여여관계, 군신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선, 남녀관계로 설정된 인물의 갈등은 세 작품에서 나타나지만 특이한 점은『방한림전』에서는 주인공이 끝까지 남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본래는 여여관계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남녀관계로 볼 수 있다.

『옥주호연』은 상대 남성과 갈등이 없다[67]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 갈등에만 초점을 둔 결과이다.『옥주호연』의 삼녀는 신분이 탄로 나기 전까지 삼남과 표면적인 대립은 보이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의 지위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 다른 성역할을 가진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암시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남녀 상하 위치에 의한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동태(同胎)한 삼남삼녀의 삶을 통해 입신양명이 남주인공에게는 가능하고 여주인공에게는 불가능한 사회적 모순을 말하고 있다.

삼녀는 아버지와 갈등의 결과 가출을 하게 되고 삼남과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을

66) 정연지, 앞의 논문, p.23.
67) 이영수,『옥주호연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pp.32-33.
강화수, 앞의 논문, pp.171-174.

시작으로 삼녀는 새로운 상황에서 정체를 감춘 채 자기실현을 하게 된다.

> **최진**이벽쥬ᄋᆡ손을잡고소왈㉠금일형의용모를본즉실노ᄉᆞ제의마음이흠모홈이심ᄒᆞᄆᆡ타일현달ᄒᆞᆫ후형갓흔부인을어더일싱동낙고져ᄒᆞ노라**벽쥬**답소왈쟝뷔공명을이룬후슉녀엇기를엇지근심ᄒᆞ리오…(중략)…**최완**이소져더러왈형등은공명의뜻이어ᄃᆡ쥬ᄒᆞ엿ᄂᆞ뇨**ᄌᆞ쥬**왈어진ᄉᆞ부를구ᄒᆞ여무예를빅화공명을셩취코져ᄒᆞ되맛당ᄒᆞᆫᄉᆞ부를맛나지못ᄒᆞᄆᆡ갈바를아지못ᄒᆞ노라[68]

위의 대화를 통해 삼남(최완, 최진, 최경)과 삼녀(자주, 벽주, 명주)가 똑같이 공명에 뜻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 그리고 삼남은 삼녀를 남자로 착각하고 있으면서도 용모에 관심을 보인다. 특히 최진은 ㉠처럼 형(삼녀)같은 부인까지 얻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한다. 이는 삼남이 삼녀가 입신양명에만 뜻을 두는 것과는 달리 입신양명한 후 부인을 얻는 것까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남의 이러한 욕구는 앞으로 전개될 삼녀와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삼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삼남과 삼녀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 최완이급히군을모라즛쳐드러가니한양이ᄃᆡ경ᄒᆞ여ᄃᆡ적ᄒᆞ다가최완ᄋᆡ창을마ᄌᆞ쥭은지라최완이승셰ᄒᆞ여셔문으로츙돌ᄒᆞ여나오니장님이ᄌᆞ쥬를마자십여합을ᄊᆞ울ᄉᆡ쟝님의기운이ᄉᆡ진ᄒᆞ여다라나거늘믄득벽쥐고셩왈쟝님젹ᄌᆞ는닷지말나ᄒᆞ며활를ᄒᆞᆫ번당기여쟝님의어깨를맛치니쟝님이몸을번드쳐말에서써러지ᄆᆡ최경이다라드러쟝님을싱금ᄒᆞ여도라가거ᄂᆞᆯ원평이ᄃᆡ로ᄒᆞ여말를노화ᄌᆞ쥬로더부러교젼ᄒᆞ여십여합의이이르러는ᄌᆞ쥬의칼이번듯ᄒᆞ며원평의탄말에것구러지니원평이말의나려ᄒᆞᆯ일업셔항복ᄒᆞ는지라ᄌᆞ쥬군마를ᄌᆡ촉ᄒᆞ여셩즁의드러가빅셩을지누ᄒᆞ고군사를호궤ᄒᆞ니라[69]

최완의 창에 적군(한양)이 죽고,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오니 장임이 자주와 교전하던 중 벽주가 활을 쏘아 장임의 어깨를 맞춘다. 이에 최경이 장임을 생금하여 돌아가자 원평이 노하여 자주와 겨루지만 항복하게 된다. 이처럼 삼남과 삼녀는 서로 합심하여 전쟁에 임한다. 다만 중심이 되는 인물과의 교전은 여주인공이 하게

68) 『옥주호연』, p.15.
69) 『옥주호연』, pp.27-28.

되고, 개개인의 활약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여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남녀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대등한 관계는 최완형제가 삼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부터 흔들리게 된다.

> 닉본딕의심이이스되그내력과학식이특이ᄒᆞ고언어동지쾌활ᄒᆞ기로오히려반신반의ᄒᆞ엿더니젼일황하산도ᄉᆞ의발이금일를이르미오우리쥬상이ᄌᆞ쥬형졔를특별이일흠을지어봉작ᄒᆞ시미또ᄒᆞᆫ짐작이계신지라우리는오릭동쳐ᄒᆞ어스되졀연히아지못ᄒᆞ여스니가히우읍도다그러나그런녀ᄌᆞ는용렬ᄒᆞᆫ장부를무수히쥬어도밧고지아니ᄒᆞ리니잇던ᄉᆞ람의ᄌᆞ식으로이갓치작용ᄒᆞ여ᄉᆞ람을속이ᄂᆞᆫ고ᄒᆞ며못닉칭찬ᄒᆞᆯ식[70]

최완은 삼녀의 정체를 일찍 알지 못한 자신이 우습다고 하면서 삼녀의 정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 이 때 호기심은 음양변체의 죄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 혼인을 하고 싶어 하는 애정욕구를 밑바탕으로 하고, 능력을 인정한 자들에 대한 호기심이다. 따라서 삼남은 삼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계략이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에 삼녀는 자신들의 정체는 입신양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감추려한다.[71]

곧 '정체를 밝히려는 자와 정체를 감추려는 자'의 갈등은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와 입신양명의 욕구'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립은 삼남이 삼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원경과 삼녀'의 갈등처럼 극단적으로 전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천자의 주혼으로 삼남과 삼녀는 다시 한 번 관계에 분열이 생기게 된다.

『홍계월전』도 『옥주호연』처럼 여주인공 계월의 신분이 탄로 나기 전에는 남주인공 보국과 표면적인 대립은 없다. 하지만 『옥주호연』과 달리 남녀주인공의 능력이나 지위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펼쳐질 대립구조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

70) 『옥주호연』, p.34.

71) 삼남의 계교에 속은 삼녀는 놀라서 바로 부인한다. '우리형등으로더부러ᄉᆞ싱을ᄒᆞᆫ가지로ᄒᆞ여졍이골육갓거ᄂᆞᆯ일시간인의말를드러의심을닉여우리를이갓치속이려ᄒᆞ기로우리도그이를짐작ᄒᆞ고짐짓거즛말로형등을취믹힉라' 반면에 삼남은 그러한 것을 보고 웃으면서 삼녀에게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옥주호연』, pp.37-38.

계월은 어려서 부모에 의해 남장을 하게 되고, 피란 도중에 부모와 이별을 한다. 다행히 여공에 의해 구출되지만 남장은 계속 유지한 채 그의 아들인 보국과 친형제처럼 자라난다. 그리고 곧 평국(계월)[72]은 곽도사에게 동문수학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과정에서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다.[73]

평국과부국이주야불철ᄒᆞ고ᄇᆡ운ᄃᆡ평국은ᄉᆞᆷ삭만에무불통지ᄒᆞ고보국은일년을ᄇᆡ외도통치못ᄒᆞ니…(중략)…평국으로장원을ᄒᆞ이시고보국으로부장원을ᄒᆞ이시고[74]

이들의 능력 차이는 1차 군담 서관과 서달의 난에서 평국(계월)이 위기에 빠진 보국을 구해주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표면상으로 갈등이 없었던 이들의 관계는 계월이 정체가 밝혀지고 혼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국은 계월과 달리 혼인해야한다는 명을 받았을 때는 '대희하여 복지칭사'할 만큼 기뻐했다. 하지만 계월이 보국에게 군례를 행하게 되자 '분함'을 느끼면서 두 사람사이의 시작된 갈등은 계월이 애첩 영춘을 죽이자 갈등이 드러난다.

보국이영츈을쥭엿단말을듯고분한을이긔지못ᄒᆞ야부모게엿ᄌᆞ오ᄃᆡ계월이젼일은ᄃᆞ원수되야소ᄌᆞ를즁군으로부리ᄆᆡ장낙지간이라능멸이여기지못ᄒᆞ려니와지금은소ᄌᆞ의ᄂᆡ실이오ᄆᆡ소ᄌᆞ의ᄉᆞ랑ᄒᆞ는영츈을무단이쥭여심ᄉᆞ를불평케ᄒᆞ오릿가…(중략)…부친게셔ᄂᆞᆫ부당지셜을ᄒᆞ시나이다셰상에ᄃᆡ장부되야계집에괄셰를당ᄒᆞ오릿가[75]

이렇듯 계월이 영춘을 죽이자 보국은 계집에 괄세를 당한다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함을 이야기하고 계월의 침소에 들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을 한다. 이에 비해 계월은 보국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평일에남자로라ᄒᆞ고나를업슈이녀기더니이제도그리홀ᄉᆡᆼᄒᆞ며무슈이조롱"[76]하면서 불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72) 『홍계월전』의 여주인공은 "천자가 부르거나 보국이 戰場에서 부르는 경우처럼 남성적인 행위를 보이는 내용이 서술되는 경우에는 '평국'이란 이름으로, 한편 홍시랑 부부나 여공, 그리고 보국이 가정내에서 부르는 경우처럼 여주인공의 여성으로 존재할 때는 '계월'이란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인경, 앞의 논문, p.234.

73) 이인경, 위의 논문, p.239.

74) 『홍계월전』, 『구활자본고소설전집』16,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pp.493-494. 다음 인용문부터는 면수만 표기.

75) 『홍계월전』, p.514.

76) 『홍계월전』, p.516.

두 사람의 대립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황제의 명으로 계월이 거짓으로 적군인 체 하고 보국과 대결하는 부분이다.

> 원쉬갑옷우에검은군복을껴입고빅사장에ㄴ셔며수긔을놉히들고말을치처보국의진으로횡힝ᄒᆞ니차시보국이졍령적쟝인쥴알고피갑상마ᄒᆞ야달녀들거날평국이…(중략)…일시에다라드러보국의창을아사들고보국의산멱롱을잡아공즁에들고말을지처텬자계신곳으로ᄀᆞᆯ시이ᄯᅡ보국이호흡을통치못ᄒᆞ고소릭를크게ᄒᆞ야원슈를불너왈평국은어ᄃᆡ가셔보국이쥭ᄂᆞᆫ쥴모로ᄂᆞᆫ고ᄒᆞ며우ᄂᆞᆫ소릭쳐량ᄒᆞ미진즁이요란ᄒᆞ고텬디가뒤눕ᄂᆞᆫ듯ᄒᆞ니원슈이말을듯고우스며왈네엇지평국의게달녀오며평국을ᄯᅩ무ᄉᆞᆷ일로부르ᄂᆞᆫ다ᄒᆞ며박장ᄃᆡ소ᄒᆞ니보국이그말을듯고졍신을ᄎᆞ려보니과연평국일지분명한지라이ᄯᅡ평국을보더니슬푼마음은간대업고도로혀붓그려슈치지심을것잡지못ᄒᆞ야[77]

그동안 계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보국은 전쟁에 나가 비로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낀다. 보국의 패배로 끝난 이 사건의 황제가 위로하면서 보국은 계월은 인정한다.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 갈등의 해결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따라서『홍계월전』에서 계월과 보국의 가정에서 주도권 갈등은 '남성의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남녀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의 갈등은 내적인격에 대한 세계의 억압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서 입신양명의 욕구, 애정욕구,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분출되었다.

남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여여의 인물관계의 갈등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인물간의 관계는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첩과의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세 작품에는 처첩간의 신분 상승을 위한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정에서 남녀의 주도권을 확인하기 위한 첩 갈등이『홍계월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여성영웅소설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의 구조가 보이는『방한림전』에서 방관주와 영혜빙의 갈등이 나타난다.

『홍계월전』에서 계월과 보국의 애첩 영춘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갈등은 가정소설과 전기 여성영웅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처첩간의 갈등양상이 아니다.

---

77)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간행위원회편(1983), 앞의 책, pp.522~523.

눈을들어영쥰각을바라보니ᄋᆡ쳡영츈이난간에거러안잣거ᄂᆞᆯ계월이ᄃᆡ로ᄒᆞ야덩을머무르고무사를호령ᄒᆞ야영츈을잡아ᄂᆞ려덩압히ᄭᆞᆯ니고호령왈네즁군에셰로교만방자ᄒᆞ야ᄂᆡ힝차를보고감히란간에놉히거러안ᄌᆞ요동치아니ᄒᆞ니네가즁군에힘만밋고이갓치교만ᄒᆞ니너갓흔요망ᄒᆞᆫ년을엇지살녀두리오당당이군법을셰우라ᄒᆞ고무사를호령ᄒᆞ야문밧게ᄂᆞ여버히라ᄒᆞ니무ᄉᆡ령을듯고달녀들어령츈을잡아나려버히치니[78]

계월과 영춘의 갈등은 계월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점, 영춘이 무례했다고 하지만 이를 죽음까지 치닫게 할 만큼의 객관적 상황이 미흡하다는 점, 영춘의 존재는 본문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영춘이 홍계월에 대해 악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월이 군법을 들어 영춘을 엄단하고 있다는 점[79] 때문에 단순한 처첩갈등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은 처첩간의 문제보다는 계월이 자신의 우위를 보국에게 재확인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국과 계월의 갈등의 양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첩간의 갈등의 원인은 홍계월이 영춘에 대해 시기심을 발휘한 것으로 보는 것[80]보다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보국의 태도에서 찾는 것이 옳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시기와 질투가 중심인 일반적인 처첩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는 자(계월)와 남자의 힘에 의존하는 자(영춘)'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갈등의 해결이 계월의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능력을 지닌 한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하는 계월의 욕구가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방한림전』에서 드러난 두 주인공은 여자이지만 실제 사회적 관계는 남녀관계이다. 왜냐하면 방관주가 남장을 하고 남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남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부부간의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81]

---

78)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간행위원회편(1983), 앞의 책, pp.513~514.

79) 이인경, 앞의 논문, pp.236-237
황미영, 「'홍계월,전'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5, pp.47-48.

80) 이인경, 앞의 논문, p.237.

81) 양혜란은 "작품에서 드러난 두 주인공의 사회적 관계는 남-여간 결연이지만 이들 관계에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여성우위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여성우위의 대립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두 주인공이 부부 생활 방식에 대해 미묘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은 나타난다고 본다.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나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 『한국고전연구』4,한국고전연구학

① 임의 남자로 힝셰ᄒᆞ야 종신코ᄌᆞ하ᄆᆡ 쳐자을 두지 아니면 방안이 의혹ᄒᆞ리니 차라리 아름다운 슉여을 으더 평싱 자긔잇스(미) 맛당ᄒᆞ나 차마 ᄉᆞ람을 쇽여 인윤을 희지으미 어렵고 ᄯᅩ흔 불초우인을 만나면 ᄌᆞ가 본ᄉᆞ을 누설할가[82]

② ᄂᆡ 본ᄃᆡ 남ᄌᆞ의 총실이 되어 그 졀졔을 밧으며 눈셥을 그려 아당ᄒᆞ물 괴로이 역여 금실우지의 죵고지낙을 ᄂᆡ원치 안턴니 우연이 이런 일이 잇슷니 웃지 우연타 ᄒᆞ리요 반다시 쳔도 유의ᄒᆞ시미라 슈션과 빗슬 가음아난 구구흔ᄃᆡ 이 예셔 낫지 안니리요[83]

①에서 방관주는 자신의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체를 감추고 싶어하고 그 수단으로 결혼을 결심한다. 한편 영혜빙은 ②에서처럼 가부장 제도아래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함께할 만한 방관주와 결혼을 결심한다. 즉 두 사람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84]

방관주는 결혼을 통해서 정체 노출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나친 내적 인격의 추구한 나머지 남성의 역할을 완벽하게 모방한다. 그 결과 평등한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영혜빙과 의견대립이 일어난다.

문빅형은 웃지 우연ᄒᆞᆫ 일의 유모를 질타ᄒᆞ신난요 유모불과 위쥬충심이라 ᄯᅩ흔 알음답지안인냐 상셔 봉안을 흘여 영씨를 슉시 왈 부인니 여도를 알ᄯᅧ라 웃지 가장의 ᄌᆞ를 부르난요 ᄂᆡ오히려 묘쥬라 알아난니 부인의 일이 가히 올흔야[85]

이렇듯 방관주는 자신을 '문백형'이라고 부르는 영혜빙에게 여도를 따르지 않고 가장의 자를 함부로 부른다고 면박을 준다. 이를 통해 방관주가 남성의 역할을 완

회,1998, p.123.

82) 『방한림전』의 원문 인용은 『백년전의 경고, '방한림전'』의 부록에 수록된 나손문고본 「방흔임전」임.
차옥덕, 앞의 책, pp.368-369. 이후부터는 면수만 표기.

83) 『방한림전』, p.371.

84) 차옥덕, 앞의 책, p.156.

85) 『방한림전』, p.380.

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부간의 위계질서까지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관주의 이러한 모습은 왕이 사례를 준 것을 아들과 나누는 것을 보고 영혜빙은 자신의 것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그의 대답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승상니 쇼왈 이것슨 다 부인의게 당치 안이혼 빅라 가이 부인을 쥬지 안컨이와 시방 부인 몸우히 가진 위의 다 ᄂᆡ게셔 비로슨 빅라 흠독ᄒᆞ거날 투졍ᄒᆞ신니 욕심이 지즁ᄒᆞ도다 부인이 잠쇼 왈 ᄂᆡ의 당치 안인 빅 그ᄃᆡ게 홀노 당할 빅 잇스리요 맛참ᄂᆡ 져리 쾌혼 체 ᄒᆞ시난요 승상니 웃던 미우를 찡그고 흥미ᄉᆞ연ᄒᆞ야 왈 부인은 들먹이지 말나 시인이 날노써 환ᄌᆞ라 할지언졍 궁곡히 의심치 안터이나 부인이 잠쇼ᄒᆞ더라[86]

부부간의 위계질서도 지키고 싶어하는 방관주와 달리 영혜빙은 평등한 부부관계를 원했다. 그래서 영혜빙은 방관주를 '문백형'이라고 부르고, 방관주가 왕에게 사례를 받았을 대도 자기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두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여여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의 갈등도 남녀관계의 갈등처럼 내적인격에 대한 세계의 억압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서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정에서 역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신분상승욕구로 분출된다.

마지막으로 상·하 질서를 중시하는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은 『옥주호연』, 『홍계월전』에서 군신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들 군신 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의 갈등은 유교적 지배원리와 자기실현을 하려는 주인공의 세계관의 대립에서 온다. 갈등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것은 가내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동일하나 유교적 세계관의 인물이 가내구성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자기실현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옥주호연』에서 삼녀의 정체는 다른 여성영웅소설과는 달리 천자 조광윤의 계교로 탄로 난다. 따라서 천자와 삼녀의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정체를 밝히려는 자와 정체를 감추려는 자'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녀는 조광윤이 천자가 되기 전부터 알게 되었다. 조광윤은 지인지감[87]이 있기

---

86) 『방한림전』, p.389.

87) '지인지감이란 일반적으로 비범하고 신비스러운 감식안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드러나지 않은 재능이나 자질을 알아보는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한국고전서사 산문장르에서는 보다 특별한 구

때문에 삼녀의 정체를 짐작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기뻐한다.[88] 그러나 그의 태도는 천자가 되면서 달라진다. 즉, 천자가 되기 전에는 봉건적 질서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고 여기고 삼녀의 정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천자가 된 후에는 봉건적 질서를 더 중히 여겨서 삼녀가 가정으로 복귀하게 한다.

천자는 삼녀에게 일방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칠월 망간(택일)에 잔치를 베풀어 문무 제신을 모으고, 삼녀에게 스스로 정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 폐히이졔천하부모되ᄉᆞ츙간을불납ᄒᆞ시니장찻천하를엇지다ᄉᆞ라려ᄒᆞ시ᄂᆞ니잇고ᄒᆞ며 읍체여우ᄒᆞ거ᄂᆞᆯ상이거즛노ᄒᆞᄉᆞ무ᄉᆞ로ᄒᆞ여곰삼인의옷슬벗겨물의너흐라ᄒᆞ시니무ᄉᆡ 젼교를밧ᄌᆞ와십여인이다라드러삼인의옷슬벗기려ᄒᆞ는지라이의이르러는삼인이피치 못ᄒᆞᆯ줄알고경황ᄒᆞ다가ᄲᆞᆯ니ᄉᆞ모와조복을벗고부복쳥죄ᄒᆞ니상이거즛놀나무르신ᄃᆡ경 의쳥죄ᄒᆞ는바실ᄉᆞ를진쥬ᄒᆞ라‥(중략)‥신쳡등이쳔디를속여음양변체ᄒᆞ온죄잇사오ᄆᆡ 이졔를당ᄒᆞ와엇지종시기망ᄒᆞ리잇고[89]

삼녀가 사실을 고백한 후에야 천자는 웃으며 이러한 일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경등이비록지혜원ᄃᆡᄒᆞ나엇지짐을속이리오'라고 한다. 결국 여성의 입신양명이라는 꿈은 남자에게는 기이한 일에 지나지 않으며, 그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삼녀는 입신양명의 꿈은 포기하지만 소극적인 여자로 변하지는 않는다.

> ①경의부뫼멀니잇고인뉴을쥬장ᄒᆞᆯ리업스ᄆᆡ군신은부ᄌᆞ일체라상과짐이경의ᄃᆡᄉᆞ를졍 ᄒᆞᆯ지니몬져의복을ᄀᆡ착ᄒᆞ라삼인이<u>시러곰마지못ᄒᆞ여조복을벗고녀복을ᄀᆡ착</u>ᄒᆞᆯᄉᆡ악연 ᄒᆞ믈이기지못ᄒᆞ여츄파의물결이동ᄒᆞ는지라[90]
>
> ②신쳡이미쳔ᄒᆞᆫ녀ᄌᆞ로당돌히음양을변체ᄒᆞ와외람므의ᄉᆞ를ᄂᆡ여우흐로셩상을기망ᄒᆞ

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혜경, 「지인지감 유형 고전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p.7.

88) "이는짐짓지모지ᄉᆡ라나의복이쥼ᄒᆞ여이런ᄉᆞ람을엇도다하고ᄌᆞ쥬등을더욱칭찬왈ᄎᆞ인은가위곤산빅옥이오창히명쥐라", 『옥주호연』, p.22.

89) 『옥주호연』, pp.40-41.

90) 『옥주호연』, p.42.

옵고다음으로아비와셰상을속이오니그죄만ᄉᆞ무셕이여ᄂᆞᆯ폐히호ᄉᆡᆼ지덕을드리오실ᄲᅮᆫ 아니오라도로혀봉작과상ᄉᆞ를나리오시니셩덕을갑ᄉᆞ올곳을아지못ᄒᆞ옵거니와이졔도 라가부모를봉양코져ᄒᆞ오니복원셩상은신쳡등졍셰를술피소셔[91]

즉, 삼녀는 ①에서처럼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순응하지만 ②의 모습처럼 끝까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래서 군신관계에 있는 이들의 갈등은 '유교적 질서에 편입하려는 자와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자'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홍계월전』의 천자도 여주인공의 주혼자라는 점에서 여성의 가정으로 복귀를 돕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 천자와 계월의 관계는 '유교 질서의 복귀 對공적 영역에서 능력발휘'의 대립양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대립은 드러나지 않는다. 천자는 계월의 능력을 믿고 지위도 유지시켜 주면서 계월이 공적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가정으로 갈등을 돕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계월이 가정으로 돌아가 부부지의를 지키라는 천자의 명에 선택권이 없다는 점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유교질서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군신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의 갈등 역시 여주인공을 남성 중심 사회 구조에 편입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의식이 강한 여주인공이 남녀·여여·군신관계로 설정된 인물들과 갈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인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는 남성중심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이다. 즉 남존여비의 유교 이념의 억압 아래 한 가정이나 남편에게 예속되어 인간적 자율성을 상실한 채 헌신적인 봉사와 순종만을 강요당해 온 여성들이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저항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주인공들의 저항은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공적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남성중심 사회 구조에 대한 갈등은 위와 같은 인물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즉 과거를 보는 행위에서도 발생한다.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킴으로써 여성의 활

91) 『옥주호연』, p.44.

동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즉 여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무스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표출한다. 특히 부모와의 이별의 고난을 겪은 후 내재되어 있던 아니무스는 확대되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러한 고난은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성의 자의식은 더욱 확고하게 된다. 여성에게 있어 고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탈출하는 길이다.[92] 따라서 여주인공은 탈출하는 방법으로 남복개착을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사회와 갈등에서 선택한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남복개착을 하면서 자기실현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었던 여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이용한다. 과거에 급제한 여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특히 전쟁에 참여하여 그 탁월한 면이 드러난다.[93] 이처럼 영웅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여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남성중심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남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국법인 과거를 보는 행위는 사회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영웅들은 단순히 도전에서 만족하지 않고 정치의 일선에 나선 남복개착한 여성은 그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무능력하고 권위적인 남성을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쟁을 나가서 자신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 그러한 행동은 전쟁에서 활약하는 여주인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은 남성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사회적 행위이다. 남성은 전쟁행위를 통하여 공격적이며, 맹렬한 힘의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더욱 남성답다는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된다. 무력이 남성의 상징이라는 통념이 성립하는 이면에는 여성은 무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전쟁에 참여하는 여성이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영웅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는 하지만 초·중반에 해당하는 여성영웅소설들은 전쟁의 행위가 우국충정의 차원이나 가문회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완성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94] 즉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은 위기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는 하지만 결국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의 질서를 인정한다. 이는 여성에게 자기실현의 의지보다는 남성중심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92) 이은경, 앞의 논문, p.51.
93) 이은경, 위의 논문, p.54.
94) 이은경, 위의 논문, p.55.

3.3 유교 중심 사회에서 정체성 갈등

여기에서 자아에 대한 갈등은 “자신의 정체성과 당대 현실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95] 『옥주호연』의 삼녀는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내면세계와 갈등을 경험한다. 여도를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위협은 삼녀에게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고 외부세계와 충돌을 일으키게 한다.

> ᄒᆞᆯ이잇지우리를니ᄌᆞ로ᄂᆡ여힝세의구ᄎᆞ하미이갓튼뇨…(중략)…만일우리형졔ᄌᆞᆼᄒᆞᄂᆞ를죽이시면인륜이산난ᄒᆞ고부모의관인ᄃᆡ덕이그린썩이될거시오ᄯᅩ아등삼인이일시의강셰ᄒᆞ믄졍녕코하ᄂᆞᆯ이유여ᄒᆞ시미니엇지녹녹히규방을직희여그져늙으리오잠간부모슬하를써나신명ᄒᆞᆫ님군을도와공명을일운후금의환향ᄒᆞ여부모긔뵈오면쾌ᄒᆞᆯ가ᄒᆞ노라[96]

삼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외부세계는 여자지도를 행하는 것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칼 쓰기와 시서백가를 익혔다. 하지만 부모에 의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외부세계와 충돌을 경험하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이러한 가운데 외부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에 모순을 느끼고 남장을 한다.

이로써 적극적으로 자기실현을 하게 되지만, 곧 삼남의 계교에 빠지면서 내적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기에 이른다.

> ① 우리쳔은을입어몸이영귀ᄒᆞ여스ᄆᆡᄯᅩᄒᆞᆫ무어슬바라며ᄒᆞ물며우로님군을기망ᄒᆞ고아ᄅᆡ로만조를속이니쳔디귀신이일졍밉게녀길지라이일이만일탄노ᄒᆞᆫ즉가장난쳐ᄒᆞ리니일즉고향으로도라가미엇더ᄒᆞ뇨쟈쥬답왈우리규즁녀ᄌᆞ로셔부모긔죄를

95) 장시광, 앞의 책, p.33.
96) 『옥주호연』, pp.9-11.

짓고도망ᄒᆞ여벡만군즁의왕ᄂᆡᄒᆞ여몸이영귀ᄒᆞ여스니ᄯᅩᄒᆞᆫ희한헌일이여니와부뫼우리싱ᄉᆞ를몰나천만가지로ᄉᆞ념ᄒᆞ시믈싱각ᄒᆞᆯ진ᄃᆡ우리불효를면치못ᄒᆞᆯ지라엇지일시나짓쳬ᄒᆞ리오마는셩상이불윤ᄒᆞ시므로쳔연셰월ᄒᆞ미니잇지나의ᄯᆞᆺ이리오

② 양형의말를드르ᄆᆡ힝여종젹이현노ᄒᆞᆯ가ᄒᆞ여졍ᄉᆡᆨ왈우리부모긔하직을고치못ᄒᆞ고나와ᄃᆡ사를도모ᄒᆞ여다힝이소원이여의ᄒᆞ였스ᄆᆡ이만깃브미업는지라이졔금의로도라가부모를뵈올ᄯᆡ의부뫼우리를일코슬허ᄒᆞ시던일이일장츈몽이되리니엇지부졀업시슬허ᄒᆞ리오우리종젹이현달ᄒᆞ기젼의아직남ᄌᆞ로ᄒᆞ잉셰ᄒᆞ여쳔하의지긔를괘히ᄒᆞ리니두형장은공연히번뇌치마르소셔[97]

부모 소식을 듣고 급히 떠난다는 삼남의 봉서를 보고 삼녀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걱정한다. ①은 정체가 탄로 날까 염려하는 벽주의 말에 규중의 여자인 자신들이 부모께 죄를 짓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주의 대답이다. 이는 삼녀가 계속해서 외부세계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규중의 여자를 도리를 어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함으로써 페르조나보다 자기실현의 의지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②의 명주의 대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명주는 대사를 도모하여 소원을 이루었으니 기쁜 일이니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고 탄로나기 전에 남자로 행세하여 천하의 지기(志氣)를 굳게 하자고 한다. 이와 같이 삼녀는 자기실현의 의지가 강하지만 외부세계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삼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외부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갈등 하고 있다.

『홍계월전』에서 나타나는 자아에 대한 갈등상은 '평국과 계월'이라는 동일인이 지니는 양면성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바로 이 작품의 중요한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98] 삼녀와 달리 계월은 자신의 내적인격을 억압하는 외부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가 억압하기도 전에 남장을 한다. 그리고 페르조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남성과 같은 수학을 하고, 과거에 장원 급제에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아니무스의 표출은 계월이 자라면서 입신양명의 욕구로 변화해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월은 삼녀처럼 외부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의 기준에 자신을 평가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규중에 몸을 숨어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97) 『옥주호연』, pp.36-37.
98) 이인경, 앞의 논문, p.235.

거부하고 남성으로서의 삶을 원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남을 한탄했다.

> 인제난홀일업시되엿스니녀복을기착ᄒᆞ고규중에몸을숨어세월을보내미올타ᄒᆞ고즉시 ᄂᆞᆷ복을벗고녀복을닙고부모전에뵈와늣기며양협에쌍루죵횡ᄒᆞ거ᄂᆞᆯ부뫼또한눈물을흘니며위로ᄒᆞ더라[99]

> 평싱을홀노늙어부모슬하에잇삽다가부모만세후에쥭어다시남자되야공밍의힝실을ᄇᆡ오고자하얏삽더니근본이탄로하야텬ᄌᆞ하교여차하옵시니부모슬하에다른ᄌᆞ식이업셔비회를품고션영봉사를전ᄒᆞᆯ곳이업ᄉᆞ오니자식이되야부모령을엇지거역하오며련자의텬자의하교를엇지거역하오리잇가하교를좃치보국을셤겨여공은은혜를만분지일이나갑ᄉᆞ올가하오니부친은이ᄉᆞ연으로텬자게샤달하옵소셔하며락루하고남자못됨을한탄하더라[100]

이렇듯 지향하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 사이의 격차 때문에 내부 갈등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결과는 보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 쟁탈로 이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역시 내적인격과 여도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이 때 방관주는 여도에의 강한 거부를 하고 그 결과 죽을 때까지 남장한 채로 살아간다. 이처럼 극단적인 자기실현은 자신의 여성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여성성을 상실한 방관주는 여도사이에서 더 이상 자아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완벽한 남성으로 살기 위해 생물학적 요소를 문제 삼는 사회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항상 생물학적인 여성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그로 인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수염이 나지 않아 문제 삼지 않을 지, 유모가 발설하지 않을지를 항상 주의한다. 또 주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지 항상 염려한다.

『방한림전』에는 방관주의 이러한 자아 갈등뿐만 아니라 영혜빙의 자아갈등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영혜빙은 여성인 자신이 왜 남성의 절제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한다. 더불어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쁘게 꾸며야 함을 매우 괴롭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내는 남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당대의 부부 이데올로기를 통찰한 데서 나온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

---

99) 『홍계원전』, p.509.
100) 『홍계월전』, p.510.

영혜빙은 그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은 인간으로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구조에 대해 영혜빙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혜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으로 존재하길 원한다. 현실에 적응하려면 거기에 맞게 의식을 바꿔야 하지만 자기주장이 뚜렷하여 의사결정도 타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 영혜빙으로서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동성결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자아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이상에서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의 자아에 대한 갈등을 살펴보았다. 자아에 대한 갈등은 곧 개인의식이 집단의식(페르조나)의 횡포로 피해 입고 좌절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실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세계와의 대립이 수반된다.

4. 극복양상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갈등은 생성 변모되면서 플롯을 이끌어 간다. 플롯의 단계를 처음, 중간, 결말[101]이라고 보았을 때, 갈등은 처음, 중간부분에서 작품의 진행방향을 예시한다. 그리고 결말부분에서 갈등은 해결의 방향이 직접적 혹은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문학적 주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갈등의 해결과정도 갈등의 내용만큼 중요하다.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에서의 갈등은 자기실현을 하려는 주인공들의 의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들인데, 팽팽하게 맞선 갈등은 쉽게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가족이나 천자 등 주변인물이 개입하여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도를 찾게 된다. 황제는 유가적 이념으로 구축된 거대가족의 수장이다. 천자의 개입은 질서유지를 꾀한 권위의 개입을 뜻한다. 여도에 순응할 뜻이 없었던 주인공도 천자가 개입함에 따라 새로운 판짜기를 위해 자신의 지향점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협상의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102] 다시 말해 천자의 개입은 여주인공과 주변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 결과 자기실현을 위해 내적인격을 표출시키는 여주인공은 주변사람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페르조나를 수용하는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을 통해 해결된 갈등의 결과 나타난 주인공의 자기실현은 외적인격에 치중한 자기실현, 외적인격과 내적인격의 조화를 통한 자기실현, 내적인격에 집착한 자기실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01)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2000, p.107.
10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앞의 책, p.80.

4.1 외적인격에 치중한 자기실현 -『옥주호연』

『옥주호연』의 결말은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의 결말과 동일하게 여주인공이 가정으로 복귀를 한다.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의 특징은 주인공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기실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남성의 신분이나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영웅적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사용한다. 결국 여주인공은 남성 중심의 사회제도인 가부장 체제의 현실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 자신의 자기실현보다는 남성의 영웅성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옥주호연』은 자기실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삼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삼녀는 유교적 질서에 편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반부의 태도와 달리 후반부에 황제의 명으로 혼인을 하면서 다시 유교적 질서에 편입하게 된다. 이렇게 삼녀가 남성의 영역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는 결말 구조는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된다.[103] 하지만 남녀관계에서 암시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전반부에서 삼녀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니무스를 표출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삼녀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알게 되고 남장을 통해 자신들의 아니무스를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또한 갈등이 생기기 전에는 단순히 표출되기만 했던 아니무스는 외부세계의 모순의 영향으로 여자도 입신양명해서 효를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아니무스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작품의 중반부나 후반부에서도 삼녀는 남녀관계, 군신관계를 통해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에 부딪히지만 전반부의 해결방식과는 다르게 가정으로 복귀한다. 내적인격의 표출을 고집하던 삼녀는 아버지와의 갈등에서는 자신의 지향점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협상의 여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남녀관계, 군신관계에서 발

103)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영웅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pp.96-99.참조.

생하는 갈등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발견하고 갈등을 해결한다. 이렇게 주인공이 협상할 수 있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와 삼남, 천자의 태도가 삼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는 삼녀의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 여도를 따르라고 하는 반면, 삼남과 천자는 삼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삼남과 삼녀는 서로 협력하면서 전쟁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우호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삼남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할 때도 삼남은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삼녀에게 스스로 고백할 선택권을 주었다. 천자도 역시 삼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삼녀에게 정체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했다. 비록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끝까지 삼녀의 선택을 기다려 준다. 이렇듯 유교적 질서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삼녀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여자도 입신양명해서 효를 실천할 수 있다는 능력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녀는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삼녀가 아니무스와 외부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둘 다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즉, 삼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외부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를 부정하지 않고 그 기준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고민했다.

> 삼부인이이러마ᄌᆞ좌졍후…(중략)…쳡등이비록녀ᄌᆡ나이미공명을일월스ᄆᆡ부모ᄀᆡ영효ᄒᆞ고쾌히힝ᄉᆞᄒᆞ여다시규즁의슈졸ᄒᆞᆯᄯᆞᆺ시업건늘상공의휼계로만인소시의본젹을탄노ᄒᆞ여금일이거죄이스니어이한이업스리오…(중략)…황명을거역지못ᄒᆞ여비록예를이루어스나양가친젼의고치못ᄒᆞ고늘의를찰히미녜아니ᄆᆡ고향의도라가부부지도를힝하여도오히려늣지아니ᄒᆞᆯ가ᄒᆞᄂᆞ이다[104]

그 결과 삼녀는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삼남과 혼인을 통해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자신들의 또 다른 목표인 효를 실행함으로써 자기실현의 의지를 끝까지 표출 하고 있다. 비록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아니무스의 실현은 사회의 억압에 막혀버렸지만, 자신들의 또 다른 목표인 효를 실행함으로써 자기실현의 의지를 부분적으로 표출 하고 있다.

---

104) 『옥주호연』, pp.45-46.

이러한 이유로 삼녀는 자신의 지향점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외적 인격에 치중한 자기실현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삼녀는 조선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을 거부했지만 자녀의 역할은 거부하지 않았다. 즉 여성이 할 수 있는 한정된 방법으로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성역할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효를 행했다.

4.2 외적인격과 내적인격의 조화를 통한 자기실현 -『홍계월전』

『홍계월전』의 주인공은 혼인 후에도 가정에서 억압된 여성의 위치가 아닌 인간으로서 인정받길 원했다. 내적 인격만을 고집하던 그녀는 주변사람들(천자와 시아버지)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내면에서의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화해는 모든 인물들의 인식의 변화로 가능해진다. 보국은 계월이 여자이지만 능력을 인정한다. 그가 남자로서의 자만을 떨어내고 그녀를 인정하는 태도의 변화는 내적인격의 추구만 생각했던 그녀를 변화시킬 수 있게 했다.

그녀의 변화는 내적인격과 외적인격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남성으로서의 삶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고집하던 그녀의 생각은 여성적 삶이 갖는 부정적 국면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의 고정성, 그것은 계월이 자각한 여성적 현실의 문제였다. 계월의 거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그녀는 결혼생활 자체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무능력한 남편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보국의 애첩을 처벌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남편에게 알리며 가정에서의 평등한 위치를 요구했다.

계월의 결혼생활이나 여성적 현실에 대한 거부감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천자나 시아버지가 계월의 태도를 인정하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들은 그녀의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라는 천자의 명령은 그녀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고 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계월이 거부 못할 엄연한 현실적 여건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계월은 가족의 일원이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들은 현실여건과 개인적 지향 간의 협상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로 인해 화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월의 화해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인정받으며 자기실현을 할 수 있다는 의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4.3 내적인격에 집착한 자기실현 -『방한림전』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다른 유형의 여성영웅소설에서처럼 일시적으로 남복하고 공적인 직위를 누리지 않고 시종일관 남자로 처신한다. 여기에는 부마간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부인이 이러한 여성영웅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 낙성이라는 양자가 우연히 주어진다는 점 등이 작용해서 위와 같은 상황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관주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버리지 않고서도 출장입상해서 가문의 영화를 빛내고, 죽은 부모에게도 벼슬이 추증된다. 한편으로는 출전입공해서 국가의 위기도 해소하는 등 영웅적 삶을 완벽히 실현한다.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사업을 완성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방관주의 이러한 삶은 영웅적 삶을 통해 충효관념이라는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다. 즉 여주인공 관주는 오로지 가문의 후사를 잇고 영화를 빛낸다는 명분으로 남복을 하고 출장입상하는 것이다. 이렇듯 지나치게 내적인격의 실현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페르조나는 완전히 무시한다. 그리고 남성에게 주어지는 페르조나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혜빙과의 결혼 후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일어난다. 이는 방관주의 가부장적 사고의 잔재와 영혜빙의 수평적 부부관계 사이에 있는 갈등이다. 그러나 부부의 갈등은 영혜빙의 유머러스하고 유연한 대처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도한 가부장적 사회 내의 인간의 한계도 나타나는데 이것도 방관주보다 조용한 가운데 한편으로 더 진보적이고 자유로우며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영혜빙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 이처럼 방관주는 페르조나를 무시하고 완벽한 내적인격의 추구로 혜빙과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혜빙의 현명한 방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 작품에서는 내적인격에 집착해서 자기실현을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남성의 모순된 행동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억압된 여성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소설 작품에서 갈등의 극복양상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세 작품의 공통된 주제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의 여주인공들은 아니무스를 인식하고 표출하게 되면서 외부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의 억압으로 자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심화 발전되고 있지만, 세 작품에서 갈등의 본래적인 원인은 개인 그 자체의 문제로 국한되기보다는 모순된 현실의 상황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세 작품의 여주인공이 공통으로 겪는 모순된 현실 상황은 가부장적 유교적 이데올로기인데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겠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붕괴되는 지배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대부 남성들은 예학을 통해서 이념적 측면의 재정비를 서둘렀다. 사대부계급이 그 자체 내에서 권력투쟁을 벌여나가면서 당파적 혹은 가문적 결속을 강화시켜가게 되는데, 이 권력투쟁의 명분 또한 예송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17세기 예학의 발달로 인한 주자학적 가부장제[105] 의식이 철저하게 뿌리 내리면서 모든 사회에서 여권은 말살된 채, 여성은 단지 남성 위주의 사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사대부계급은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다. 첫째, 벌열들은 가문의 내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주자가례의 종법에 의거하여 부계 적장자 위주의 가족제도를 확립했다. 그리

105) 주자학적 가부장제란 주자학 특히『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비롯된 가부장제를 말한다. 주자가례는 관혼상제 등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으로, 일종의 종법에 바탕 한 유교 의례서이다. 이 책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종법(宗法)인데,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부계 적장자 위주의 가(친)제도이다. 모름지기 정실부인에게서 태어난 큰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창권,『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p.31.

고 딸들은 결혼과 동시에 출가외인으로 취급하여 재산상속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종법적 가족제도는 가계를 이을 후손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만약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엔 양자를 들여서 후사를 잇게 하는 양자제도를 일반화 시켰다. 나아가 처첩 구분과 적서차별도 더 엄격해졌다. 처와 첩을 더욱 뚜렷이 구별하여 서로 상하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그 자녀들인 적자와 서자도 엄격히 구별하여 차별했다. 마찬가지로 홀로된 여인의 생존을 위한 재혼도 종법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게 위해 금지하였다. 둘째, 종법적 가족제도는 남편과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장 혹은 가부장권의 확립을 동반하지 않고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관혼상제 등 유교식 의례를 철저히 준수하여 가부장권의 확립을 꾀하였다. 원래 유교식 의례, 특히 빈번한 조상 제사는 가족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확인하는 수단이자 가부장권을 확립하는 수단이었다. 유교식 제사는 철저히 부계혈연 위주였고,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 특권의식을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들은 또한 각종 수신서(修身書)를 보급하여 자녀들 특히 여성들의 행실을 경계하였다. 위의 행장과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엔 『소학』을 국가적 사업으로 보급하고, 효경을 강조하며 『내훈』, 『여범』, 『여사서』, 『계녀서』, 『열녀서』 같은 다양한 수신서를 대거 번역·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배층은 각종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들의 행실을 철저히 단속했다. 정절, 내외법 출가외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조선 후기 여성의 정절은 가문의 보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더욱 강조 되었고, 심지어 국가는 열녀 표창과 부역 면제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녀 간에 지켜야할 내외법도 더욱 완고하고 불평등하게 적용하였다. 여자는 7살만 되면 바깥출입을 금지한 채 집안에서만 살도록 했고, 촌수가 먼 친척들과는 서로 대면조차 못하게 하였다. 주택도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하여 여자는 주부권을 가진 안채의 주인으로, 남자는 가장권을 가진 사랑채의 주인으로 각각 살도록 하였다.[106]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현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억압이 강할수록 사회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감금의 현실과 탈출의 충동 속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바로 소설이라는 상상의 공간이었다. 즉 소설 공간은 여성들에게 이상이자 안식처가 되었고, 현실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제한된 욕망을 분출 할 수 있는 곳이었다.

106) 정창권, 앞의 책, pp.35~39.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여성들의 욕구를 담아내며 여성이 주역이 되는 소설이 등장할 수 있었다. 세 작품 역시 여성들의 제한된 욕구가 반영되었다.

강력한 가부장적 질서가 내세우는 여도는 여주인공의 자기실현을 막기 때문에 여도는 갈등 그 자체였다. 그래서 여주인공은 여도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화 즉 시서백가와 칼 쓰기와 같은 남성만 가능했던 것들을 학습하고 남성 못지않은 영웅성을 발휘했다.

또한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능력을 '내조'라는 간접적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공이라는 직접적 목표를 향해 발휘하였다. 다시 말해 주인공들은 아니무스표출과 함께 입신양명이라는 욕구를 실현시키길 원했다. 따라서 이를 제약하는 모든 현실상황과 부단히 대결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작품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제 질곡을 벗어나 사회적인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러한 점은 다른 작품보다 「홍계월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능력있는 여성과 평범한 남성이 결합할 경우, 남성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유교 이념을 토대로 하여 여성을 억압하려 하나 여성이 그러한 처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곧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체제 아래에서 결혼이라는 형식 안에서 대등한 인간관계를 획득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인물의 관심은 자아실현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부장제적 규범이라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을 보조적, 도구적 존재로 소외시키지 않고 주체적 의지와 적극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정리하자면, 여성영웅이 추구하는 세계는 남자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던 공명의 길, 즉 사회적 자아성취의 길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는 기존의 규범은 그들에게 속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그것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아성취를 통해 획득한 정신적, 경제적 자립에 있다. 이들은 폐쇄적인 사회의 여성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이끌어 나

가는 여성이자 근대적 여성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하겠다. 이들은 비로 여자의 몸이지만 남자 못지않은 영웅적 활약과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가정에서도 열등한 위치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아를 실현시킨다. 그러한 과정에서 잠재능력의 확인과 자아실현에의 동기들을 성취하며 사회제도적, 관습적, 이데올로기적 갈등들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의 핵심적 주제는 여주인공들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여도 거부, 가부장사회의 해체, 여성교육의 신장, 여성의 공적영역의 진출은 기본 동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양상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특징, 갈등의 전개, 갈등의 해결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주제까지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갈등에는 주로 현실과 주인공의 충돌로 인한 대립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갈등의 동기의 설정도 주인공을 둘러 싼 외적 조건인 상황(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제시되기도 하고 개인의 내적 조건(아니무스 실현)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사항들을 결론삼아 개괄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작품의 기본구조를 '주인공의 출생- 남복의 개착- 부모와의 이별- 수학의 과정- 사회로의 입문- 전쟁의 출전과 공로- 신분의 탄로- 남녀의 결연- 남녀의 대립- 가정으로의 회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후반에 나타난 이 세 작품만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즉 여성영웅소설에서의 남복개착은 남성의 보조를 위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성이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여성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여성 주인공은 부모와의 이별을 통해 고난을 겪게 되며, 그러한 고난은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한 과정을 돕는 구조자에 의해 여성은 활쏘기, 말타기 등 남성적 수학과정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단순히 아니무스의 표출에서 벗어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한다. 그 결과 과거제도라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의 대립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된 모습은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여성은 신분이 탄로 난 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서만 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둘째, 이와 같은 작품의 서사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세 작품의 갈등양상을 알아보았다. 세 작품의 주인공은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다. 이들이 겪는

갈등의 본래적인 원인은 주어진 상황의 모순 속에서 파급되는 것들로 작품 속에서 인물과의 갈등을 통해서 표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은 자기실현의지가 강한 주인공이 강압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되찾아야할 여성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인공에 의해서 표출되었다. 이때 강압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정 윤리적 측면과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적 측면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즉 세 작품의 갈등양상을 전통적 가정 윤리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 혹은 유모와 갈등양상,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남녀 사이의 갈등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또한 소설에서 갈등의 양상은 앞에서처럼 개인과 사회의 갈등 형태뿐만 아니라 자아와의 갈등도 존재하게 되는데 세 작품에서도 역시 자기실현의 의지가 강한 주인공이 유교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아에의 갈등은『옥주호연』을 통해서는 주인공들이 효의 이중성이라는 모습의 상황에서 자아와 갈등을 경험했고,『홍계월전』에서는 주인공이 남성의 권위주의로 인해 자아와 갈등을 경험했고 마지막으로『방한림전』에서는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면서 자아와 갈등을 경험했다.

셋째, 갈등의 해결을 다룬 장에서는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에게 부여된 소설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지에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옥주호연』에서는 여주인공이 외적인격에 치중한 자기실현을 했고,『홍계월전』에서는 외적인격과 내적인격의 조화를 통해 자기실현을 했다. 그리고『방한림전』에서는 내적인격에 집착한 자기실현을 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다. 이러한 극복양상을 통해 공통된 주제를 도출해 볼 수 있었다. 공통된 주제는 여주인공들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도 거부, 가부장사회의 해체, 여성교육의 신장, 여성의 공적영역의 진출은 기본 동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양상이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세 작품은 강력한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조건에서 인간적인 개성을 유지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졌다. 또한 인물들이 자아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의 방황에는 개인과 사회와의 모순과 충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옥주호연」: 木板本, 京城; 白斗鏞家, 京城府 仁寺洞 翰南書林, 1920. 국립중앙도서관본.

「홍계월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16,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방한림전」:『백년전의 경고, '방한림전'』의 부록(p.363)에「방흔임젼」나손문고본(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이).
차옥덕,『백년전의 경고, '방한림전'』, 아세아 문화사, 2000.

2. 학위 논문

강민화,「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박씨전','백학사전','홍계월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강화수,「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김현옥,「'옥주호연'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박명희,「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박은영,「'방한림전'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손연자,「조선조 여장군형 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1.

송호진,「'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여성의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안순희,「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박씨전, 옥주호연, 홍계월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양혜란,「지인지감 유형 고전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여세주,「여장군등장의 고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1.

이미자,「여성영웅소설의 연구-장부형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이영수,「'옥주호연'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은경,「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이해근,「‘홍계월전’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임병희,「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9 .
정연지,「여성영웅소설의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5.
조은희,「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영웅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최두곤,「‘홍계월전’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최현애,「여성영웅소설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교육적 가치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진숙,「‘옥주호연’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황미영,「‘홍계월,전’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5.

3. 국내논저

고은미·이수라·이월영·이화경·이희경,『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
김연숙,『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김종권 역주,『(신완역) 내훈· 계녀서』, 명문당, 1998
박상란,『여성과 고소설, 그리고 문학사』, 한국학술정보, 2005.
박창희,『갈등과 소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9.
성현경,「여걸소설과 ‘설인귀전’」,『국어국문학』62·63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소혜왕후 한씨, 송시열 저, 김종권 역주,『內訓·戒女書』, 명문당, 1988.
안기수,『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4.
양혜란,『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림전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이부영,『분석심리학』, 일조각, 2003.
이상택,『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이원수,『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이윤경,「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돈암어문학』13집, 돈암어문학, 2000.9.
이인경,「‘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관악어문연구』17, 1992.
장시광,『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6.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 ksi한국학술정보(주), 2006.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어문연구』17, 1988.
정병헌·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정영자, 『한국 페미니즘 문학 연구』, 좋은날, 1999.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88.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 연구소, 1971.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5.
조현설,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사, 2002.
(사)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동녘, 200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한용한,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2000.

◈ 국문초록

조선 후기에는 가부장적 억압의 질서가 심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성행했던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여도(女道)를 수행하지 않고 영웅적인 활동을 감행한다. 문학이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때 작품 속의 여주인공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물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을 통해 조선후기에 정당화된 성역할의 모순과 주체적인 삶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고 싶어 하는 여성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초반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은 자기실현을 위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위기 극복이나 남편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여성영웅의 모습은 후대로 오면서 점차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과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회의와 가부장제 사회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옥주호연』,『홍계월전』,『방한림전』등이 있다. 세 작품의 여주인공은 다른 여성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기존의 질서와의 정면대립을 통해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물의 신화적인 영웅성보다는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에 비중을 두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작품에서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극복되는지 고찰해 보았다.

우선 세 작품이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 작품들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띠며 작가의 의도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들 작품만의 독특한 서사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단락별로 '주인공의 탄생- 남복의 개착- 부모와의 이별- 수학의 과정- 사회로의 입문- 전쟁의 출전과 공로- 신분의 탄로- 남녀의 결연- 남녀의 대립- 가정으로의 회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후반에 나타난 여성영웅소설과 영웅소설,초·중반에 나타난 여성영웅소설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영웅소설과의 차이점은 주인공의 탄생이 영웅적인 탄생이라는 점은 영웅소설과 다르지 않았지만 주인공의 성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에 비해서 기존 질서를 회복하고 봉건적인 충의 관념에 사로잡힌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과의 차이점은 '남복의 개착과 가정으로의 회귀'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중반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의 남복 개착이 남성의 보조를 위한 일시적인 변화였으며 가정으로 회귀를 할 때도 봉건적 질서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반면에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복 개착을 했다. 즉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남복 개착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가정으로 회귀한 후에도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초·중반의 작품들과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은 작품의 서사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세 작품의 갈등양상을 알아보았다. 세 작품의 주인공은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다. 이들이 겪는 갈등의 본래적인 원인은 주어진 상황의 모순 속에서 파급되는 것들로 작품 속에서 인물과의 갈등을 통해서 표출된다. 다시 말해서 갈등은 자기실현의지가 강한 주인공이 강압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되찾아야할 여성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인공에 의해서 표출된다. 이때 강압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정 윤리와 남성중심 사회 구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세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사회와 개인의 갈등 자아의 갈등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때 전자에는 전통적 가정 윤리에 대한 갈등, 남성 중심 사회 구조에 대한 갈등이 해당된다. 후자에는 유교 중심 사회에서 정체성 갈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갈등양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봄으로써 사회의 모순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의지와 작가가 하고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주인공들의 자기실현의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세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양상이 비슷했던 것과는 달리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옥주호연』의 여주인공은 외적인격에 치중한 자기실현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고, 『홍계월전』의 여주인공은 외적인격과 내적인격의 조화를 통한 자기실현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다. 마지막으로 『방한림전』의 여주인공은 내적인격에 집착한 자기실현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후반에 등장한『옥주호연』,『홍계월전』,『방한림전』에는 모순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새로운 여성을 보임으로써 고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유형성을 다양하게 변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전공	학 번	2006802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부가영	한문: 夫嘉英		영문: Bu, Ga-Yeon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모아2차 108동 1005호				
연락처	011-641-7192		E-MAIL: gloria10@nate.com		
논문제목	한글 : 여성영웅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영문 : A study of the aspects of conflict in heroine novels -Focused on "Okjuhoyeon" "Honggyewoljeon""Banghanrimje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부 가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